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79 1982년 7월 20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ly 2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전두환대통령

토론토 방문

8월28일·29일

몬트리얼, 캘가리도 갈듯

리셉션에 교민 3백카플 초대

전두환대통령은 캐나다 방문중 토론토, 몬트리얼, 캘가리도 방문한다.

본 토론토한국일보사가 캐나다관계 당국에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대통령은 8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토론토를 방문, 교민들을 만나며, 몬트리얼에서는 베테랑즈·하스피틀(군병원)에 가서 아직도 입원중인 6·25동란 참전 부상병사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캘가리서는석유산업을 시찰하고 교민들과도 환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카양국은 전두환대통령이 아프리카4개국 순방후 8월28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지난 6월17일 발표했으나, 전대통령의 캐나다일정에 관해서는「보안상」이유로 일체 비밀에 부쳤었다.

특히 전대통령이 친북한계, 반국가적 인사들도 있는 토론토에 올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일체 함구, 구구한 억측을 낳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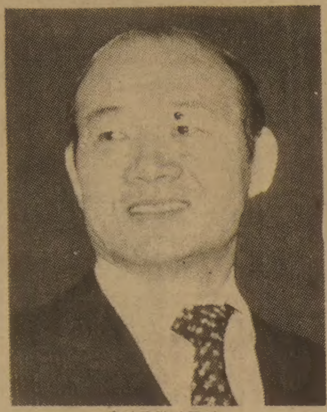
19일 토론토총영사관측은 전대통령의 토론토방문 여부에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전대통령의 교민 리셉션에는 토론토교민 3백카플이 초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인사들의 명단은 이미 오타와대사관에 통보됐으나, 토론토지역 리셉션의 일시,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오타와에서는 오준상(연방정부공무원)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대통령 환영위원회가 구성됐다. 오타와교민들은 공항에서부터 전대통령이 떠날때까지의 만반의 환영준비를 갖추고 있다.

슈라이어총독 초청으로 트뤼도수상의 방한에 대한 답례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전대통령은 오타와에서 트루도수상과 만나 태평양연안국 정상회담과 캔두원자로 추가구입등 상호관심사를 논의한다.

태평양정상회담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등 태평양연안국가 수뇌들이 모여 관심사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으로 지난 5월 뉴질랜드수상의 방한중 전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



◆전두환대통령

88년 퇴진 다짐

전대통령, 제헌절연설

(서울17일=연합)전대통령은 17일, 오는 88년 3월 7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퇴임할 것임을 재삼 확인했다.

제34차 제헌절경축식에서 김상협신임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에서 전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며,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민정당 이종찬총무 22일 캐나다 방문

(서울)한국민정당 원내총무 이종찬의원은 오는 22일~25일 캐나다를 방문 트루도수상및 연방의원들과 만나 한·카의원협회 문제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정당의 봉두환·임철순의원및 민한당의 조정윤의원을 수행한 이의원일행은 캐나다방문을 마친뒤 워싱톤으로 떠나 미국의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기계류 수출급증

81년 $64억

(서울19일=연합)공구등 기계류가 한국수출품의 주종목으로 등장했다고 상공부가 발표했다.

상공부에 의하면 19일 기계류수출고는 지난10년간 매년 49.9%씩 증가, 70년의 7천7백만달러에서 81년에는 64억달러에 달했다.

86년까지는 기계적산업에는 총1,500억 달러가 투자될 것 이라고 상공부는 발표했다.

◆무더운 주말동안 조지안 베이의14Km길이의 백사장에는 10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모래성 쌓기에 바쁜 일가족이 모습의 부럽기만 하다.

黨에선 추대준비안됐다

민정당대변인, 전대통령 후계문제 언급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LA타임스의 동경특파원 샘제임슨기자는 최근 한국의 민정당과 민한당지도자들과 인터뷰, 두정당이 당면한 [illegible] 대해 보도했다. 다음은 제임슨 기자의 LA타임스 보도내용(16일자)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주〉

LA타임스 **한국정세보도**

「새시대」토착실패로 민정당타격

김영삼씨등 구정치인 복권 시기상조

유치송 민한총재 **"헌법개정 1~2년내 어려워"**

전두환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민정당은 최근 여러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0년 1월15일 창당된 민정당은 81년3월의 국회의원선거때 선출된 1백51명의 의원중 단지 20명만이 정치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대다수 초선의원들이었다.

최근 10억달러상당의 금융스캔들에 대한 책임으로 전육군준장 권정달사무총장을 비롯한 4명의 당간부가 물러나는등 전대통령이 80년8월 집권과 함께 주창한 「새시대」의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정당은 정면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더군다나 미국산곡류수입과정에서의 뇌물수수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건, 경찰관 난동으로 56명이 사망한 사건등과 함께 금융의 스캔들, 개각, 민정당간부의 당직사퇴가 일어나 제5공화국 출범이후 집권당인 민정당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민정당의 이종률대변인은 오는 88년 임기만료되는 전대통령의 계승자를 민정당 자체내에서 추대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부에서는 후계자 추대문제에 군부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전대통령을 비난한후 자택에 연금되어 있는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를 비롯, 정치활동이 금지된 3백15명의 구정치인에 대한 복권문제는 아직 그 시기에 대해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유치송 민한당총재는 의령 경찰관의 주민대량사살사건과 장영자사건으로 정부불신이 깊어가고 있으며, 정부가 계속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이 1~2년내에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집권당인 민정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대통령만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면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된다는 생각은 국민을 기만하는 크나큰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치적 능력을 지닌 김상협씨가 총리에 임명된것은 희망적이며, 그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다고 유총재는 덧붙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국회의석 2백76석 가운데 82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한당은 이빨없는 호랑이에 불과해 야당측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 외는 묘안이 없는 것 같다.

문선명씨, 18개월 징역형

$2만5천 벌금형도, 탈세혐의유죄

(뉴욕)미연방지방법원은 탈세혐의로 기소된 문선명 통일교주(62)에게 16일 18개월의 징역형과 2만5천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에서 문씨는 판사가 유죄선고를 내리는 순간 두 눈을 감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게롤판사는 선고에서 "문씨에게 유죄를 선고 않을 경우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난한자는 감옥에 가고 문씨처럼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씨는 지난5월18일 1973~1975년간의 은행이자수입 11만2천달러에 대한 세금포탈과 영리행위로 번 5만달러어치의 주식에 대한 보고불이행및 허위소득보고등 혐으로 배심원에 의해 기소됐는데, 최고 1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씨는 이 돈과 주식이 개인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이 기탁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지방판사 제럴드·게롤은 14일 문씨의 기소는 차별적인 것이어서 취하해야 하며 통일교에 대한 편견때문에 배심원없는 재판이어야 한다는 변호인측의 제청을 기각했었다.

그런데 금년초 뉴욕최고법원은 통일교가 기독교단체이므로 면세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찰스·스틸먼은 "문씨는 이미 우리 사회제도에 의해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유죄선고는 피를 갈구하는 대중의 욕망만 만족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하버드대 로렌스·트라이브 헌법학교수도 문씨에 대한 유죄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그를 감옥에 보내는것은 통일교들에게 전 종교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될 것이며 미국내 모든 종교단체에 공포감을 조성케된다고 역설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난꼼와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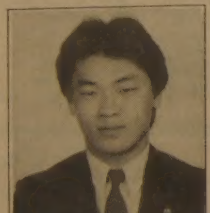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VOLKSWAGEN & AUDI

RABBIT STARTS FROM $6,990.00

- RABBIT CONVERTIBLE
- VOLKS JETTA
- SCIROCCO SPORTS COUPE
- VOLKSWAGEN VANWAGEN CAMPER
- AUDI 4,000 FUEL INJECTION
- AUDI 5,000 TURBO (10% 이상 off)
- AUDI TURBO DIESEL
- AUDI 4,000 SPORTS COUPE
- QUATTRO 4 WHEEL DRIVE.
- PORSCHE

LEASING ALL MAKES!



손명철(MICHAEL SON)

전통의…
견고하고…
믿을수 있는…
독일차로

CEDARBRAE VOLKSWAGEN LTD
666 MARKHAM ROAD At Lawrence SCARBOROUGH,
MICHAEL SON 손 명 철
전화 : (416) 438－1900 (B, 499－8589 (R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음주측정테스트 위헌"

북미 법률가회의서 논란

미국의 법원들도 음주측정 테스트가 위헌이라는 온타리오주 지방법원 찰스 판사의 판결을 따라야한다고 미국변호사가 주장했다.

17일부터 시내 쉐라톤센타에서 열린 제37차 북미법률가회의에 참석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티스·조이변호사는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구태여 증명할 필요는 없어 음주측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법원들도 이 판결의 정신을 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찰스판사는 지난 15일 키치너의 한 음주운전자 재판에서 음주측정테스트(Breath-Test)는 지난4월부터 발효된 캐나다신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신헌법에서는 개인이 자기에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 음주운전테스트 자체가 이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조이변호사는 미국의 수정헌법5항에서도 이같은 조항을 명시했으나, 이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측정테스트를 거부하는 개인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고 조이씨는 말했다.

뱅쿠버의 찰레스톤변호사는 자기가 변호한 수백건의 음주운전재판에서 단 3건만 졌다고 말하고 음주측정테스트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찰레스톤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쓰고 있는 스미스·웨슨사의 측정기 자체가 부정확, 최근 동회사에서 모두 수거 재조정했다면서 이 테스트는 개인의 알콜에 대한 적응도, 인내심등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밀톤교민 5백여명

ㅂ물찾기등 푸짐한 야유회

해밀턴 한인회(회장 이영구)는 지난10일 히든·밸리공원에서 교민가족 500여명이 모여 교민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는 각 가정의 음식과 한인회가 제공한 각종 음료수, 칩스, 불고기등으로 푸짐했다.

야유회는 보물찾기를 선두로 어린애들 뛰기, 성인 줄달리기, 청년부 대 장년부의 야구경기와 축구경기가 있었으며, 결과는 청년부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특히 이날 야유회에는 해밀턴실업인협회의 협조로 해밀턴지역 도매상들로부터 많은 물품과 현금의 기증이 있었다.

한국일보
533-2361

명문 사립 수석

브램톤 김율송양

◆김율송양

김상남·김옥규 부부의 딸 김율송(13·Lucia Kim)양이 브램톤 명문사립학교인 k.R.T. 크리스천스쿨8학년을 평균 95%의 성적으로 수석졸업했다.

10년전 이민 브램톤에서 파이어·핏·햄버거식당(Fire Pit)을 경영하는 김씨의 딸인 김양의 특기는 피아노로 각종 경연대회에서 1~3등상을 수상했다.

교포자녀 4명 입상

런던의 CMC결선

연방정부의 체신성(장관 프랜시스·폭스)이 보조하는 케네디언 뮤직·컴프티션 제25차대회에서 대회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자녀4명이 입상했다.

12일부터 17일까지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열린 본선에서 현악 10세이하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한 뱅쿠버교민 헬렌·윤·킴양의 아버지 김도국씨가 뱅쿠버로 돌아가는 길에 토론토에 들러 본사에 전한바에 따르면 금년대회 입상자는 김양이외에 8세이하 현악부문 1등인 바이올린의 패트리셔·선우(뱅쿠버·89점)양, 피아노 8세이하 2등인 루실·정양, 피아노 14세이하 2등인 위니펙의 제인·김양이다.

제인·김양은 이번 제2회 한인민족상수상자인 김원경박사의 딸이다.

루실·정양은 몬트리얼거주 정영섭(유전학박사·몬트리얼대교수)씨의 딸이며,

92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상금 $150을 탄 헬렌양은 홍·하드웨어를 경영하는 김도국씨의 5녀중 둘째로 현재 뱅쿠버·아카데미·뮤직스쿨에서 스즈끼방법으로 배우고 있다.

CMC는 매년 각 주별 예선을 거친 7~25세이하의 음악인들이 피아노, 현악, 성악, 관악 4개부문에서 년령별로 겨루며, 특히 나이가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 상금도 크며 권위도 인정받는다.

◆헬렌·윤·킴양

OPP순찰강화

31~2일, 연휴동안

오는 8·2의 시민의 날(Civic Holiday)연휴를 맞아 온타리오주경찰(OPP)은 특별교통단속을 펼친다.

OPP의 전차량이 동원될 것 이라고 밝힌 제임스·에스킨경찰국장은 시민의날 연휴는 연중 가장 많은 차량이 붐비는 기간이라고 말했다.

에스킨국장은 "과속이 사고의 첫째요인으로 휴일에는 시민들이 느슨해져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단속기간중에는 레이다를 장치한 OPP순찰차가 각종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일부주요 고속도로에는 헬리콥터까지 동원된다고 말했다.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에서의 한글교육 ⑤

조 성 준(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복합문화와 소수민족 언어교육

조성준 씨

한국가정에서 한국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을 모른다고 그 아이는 한국의문화를 전혀 모른다든지, 한국적인 아이덴티티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되겠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 자기는 문화적인 면에서 어딘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느끼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말을 모르면 한인사회나 한인학생들 모임에 참여를 못하거나 안하게 되는것 같다.

그와같은 현상은 이곳으로 이민온 여러 소수민족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다. 영어를 모르는 이태리사람은 이태리신문 밖에 볼 수 없고, 교회도 이태리교회밖에 갈 수 없고, 즉 캐나다내의 조그만 이태리에서 살게 되는것 같다. 다시말해보면 언어는 문화를 지속시켜주고 제일,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각 개인의 사고및 활동의 범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개의 언어를 배우면 따라서 그 언어가 속해 있는 그 문화를 배우게 된다. 즉 또 하나의 세계를 배우고,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한개의 문화를 배우면 그 문화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고, 그 문화가 가져다 주는 지혜를 배운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이곳으로 이민온 여러 소수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를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높이 평가되어져야 하겠다.

캐나다에서 소수민족 언어교육의 실태를 보면:

온타리오주에서는 1977년 주 문교부에서 모국어교육(Heritage Language Program)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고, 한주에 2시간반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수업시간은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후에나, 주말에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1970년~80년 사이에 본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수는 76,017명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르치는 언어수는 44개의 언어이다.

금년 9월부터는 토론토시교육위원회가 학교정규수업시간중 30분씩 모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온타리오주 문교부장관의 금지령이내렸기 때문에 토론토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밥·스팬서씨는이 문제를 법원에 고소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톨릭계통의 학교에서는 모국어교육을 학교수업시간 중에 이미 실시하고 있다.

알버타주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1971년에 영·불어이외에 언어를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물론 이 법은 모국어자체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다른 학과목을 배우는 것은 허용한다. 현재 에드몬톤시의 여러 국민학교에서 우크라인 언어, 독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다.

마니토바주에서는 1979년에 캐나다국어외에 다른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들었으며, 학교수업시간중 50%까지 국어이외의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데, 1980년도 영어-유크라인 언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81,320명이었다.

퀘백주에서도 1978년도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태리어, 포르투칼어, 희랍어, 스페인어 교육을 소수민족 아동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모국어 프로그램이외에도 소수민족 중심의 여러 교회와 사립학교및 모국어교육학교에서 자기들의 모국어를 교육해 오고있다. 토론토에 위치한 유대인 사립학교 교사의 말을 빌리면, 그 학교에서는 유치원때부터 영어, 불어, 이디쉬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2~3학년이되면 4개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상용한다고 한다.

〈계 속〉

자동차 도난 방지장치

개솔린 공급차단기

자동차 도둑이 늘어나자 도난방지 기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도난방지 기구들은 개솔린 공급차단기, 점화자물쇠, 덮개장치, 점화방해장치, 후드자물쇠, 도난경보 사이렌등 다양하다.

자동차 전문 도둑들은 도난방지 장치가 되어있는 자동차도 훔치고 싶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훔칠수 있다.

전문도둑들은 훔친 자동차를 조직적으로 공장에서 분해하거나, 부속품 확인번호를 변경하여 시중에 팔고 있다.

자동차도난을 완전예방할 수 있는 기구는 없다. 경찰은 자동차도난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차고나 드라이브웨이를 이용토록 권하고 있다.

만약 길에 주차할 수 밖에 없으면, 불빛이 밝은 곳에 주차하는 것이 도난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동차 전문도둑들이 차를 토잉해 가지 못하도록 앞바퀴를 인도와 차도사이의 커브를 향해 돌려 놓으면 도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경찰은 조언하고 있다.

값진 물건을 주차한 자동차 안에 눈에 띄도록 놓아두는 것은 금물.

도난방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열쇠를 챙겨두는 일과 자동차 문을 모두 잠그는 일이다.

돈을 들여 도난방지장치를 한다고 해서 자동차도난을 완전방지 할 것은 아니나, 없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물론이다. 여러가지 도난방지 기구를 한꺼번에 사용하면 도난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몇가지 간단한 도난방지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화자물쇠 덮개

수갑처럼 생긴 철제덮개로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점화자물쇠를 덮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쉽사리 떼어낼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값은 45달러 내지 50달러, 설치비용은 들지 않는다.

◉지팡이 자물쇠

지팡이처럼 생긴 쇠막대기의 한쪽끝은 핸들에, 또 다른 끝은 브레이크 페달에 걸어놓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값은 17달러50센트 내지 35달러, 설치비용은 들지 않는다. 경찰과 자물쇠 제조업자들은 지팡이자물쇠도 쉽사리 부술 수 있다.

◉점화 자물쇠 실린더

철제원통형 실린더가 점화자물쇠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덮고 있다. 상표이름은 메데코·수퍼 자물쇠. 값은 1백달러 내지 150달러이다. 경찰과 자물쇠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잡지인 「소비자 보고서」는 실린더자물쇠가 쉽사리 제거 할 수 없고 안전한 도난방지 장치라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핸들과 연결된 조종원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쉽사리 조종원주를 파괴하고 실린더자물쇠를 벗겨낼 수 있다.

▲개솔린 공급차단기

엔진으로 개솔린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다. 값은 75달러 내지 150달러,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비밀스위치가 눈에 띄지 않은 곳에 장치되어 자동차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점화중단기

이 장치는 자동차 도둑이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점화장치의 작동을 저지시키고 있다. 동시에 후드도 열지 못하도록 잠가놓고 있다. 비밀스위치나 단추, 혹은 열쇠로 중단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값은 75달러 내지 1백75달러.

이외에 점화중단기나 개솔린 공급차단기에 연결된 도난경보장치들이 자동차 도난방지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문이 열리거나 진동, 움직임, 소리 때문에 작동하는 도난경보기들도 있다.

도난경보장치는 값이 50달러 내지 9백달러.

경보장치는 자동차 도둑이 소리에 놀라 도망가야 효과를 발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어떤 곳에 주차되어 있느냐에따라 도둑이 경보에 겁을 내거나 안낼 수 있다.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비밀스위치나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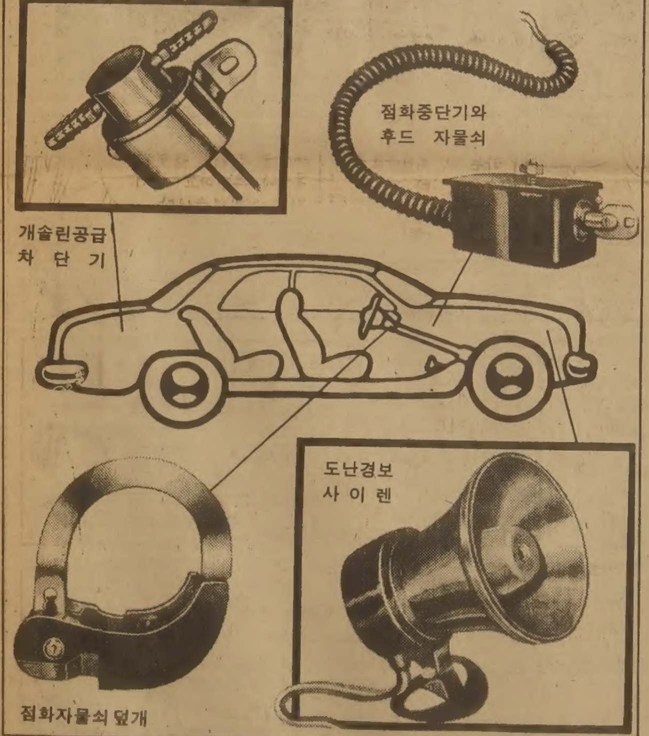
전문적인 도둑들은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을 끊어 경보를 멈추게 한 다음 토잉트럭으로 자동차를 훔치고 있다.

경찰이나 도난방지기 판매상인들이 권하지 않는 도난경보기는 비퍼다. 비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만 경보를 발하는 장치, 비퍼소리를 듣고 자동차 주차장에 달려간 사람들은 도둑에게 부상을 입거나 죽을 위험이 따른다.

레이더로부터 비퍼를 산 손님중 2명이 자동차도둑을 가로막다가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상 도난방지장치 가격은 모두 US$이다.)

◆자동차도난방지 장치들◆



외환 5만불이내는 신분확인없이 환전

(서울17일=연합)한국은행은 16일 외환권소유자가 신분확인없이도 원화로 바꿀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일반은행에 시달한 내용을 보면 5만달러 한도내에서 외환권을 원화로 바꾸려할때는 신분확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사한것.

이번 조치는 위조외환권을 단속하기 위한 종래의 신분확인이 외환권을 암시장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폐단이 지적된후 취해졌다.

차관 40억불

이외무, 방일때 수락

(서울17일=연합)

정부는 40억달러의 대일차관을 수락했다고 이범석외무부장관이 16일 국회외무분과위원회에서 밝혔다.

이장관은 자신이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을때 당초 60억달러 요구선인 대일차관이 40억달러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구독은…
533 2361

◆올해 95세인 스티븐·그래함할아버지가 72년간 사이좋게 살아온 부인 밀리(94세)할머니에게 정답게 키스하고 있다. 바로 맞는 사람과 만나오랫동안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스티븐할아버지는 "우리의 결혼은 이상적인 결혼이었다"고 자랑한다.

제6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 개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각 고등학교 동창회 대항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친목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7월31일(토) 11시30분
장 소: Castlemore Golf & Country Club
참가자격: 각 고등학교동창회 회원 3인이상및 게스트
참 가 비: ①각 동창회당 $50
②개인당 $30(그린 Fee및 디너포함)
시 상: ◆단체 Gross 1,2,3등 및 Net 챔피온
◆개인 Gross 1,2,3등 및 Net 1,2,3등
◆게스트 Gross 1,2,3등
◆롱게스트 ◆니어리스트
◆모스트 어네스트 플레이어
연 락 처: 정용주(☎: 274-4303)
이춘수(☎: 536-2243)

주최: 경동중고등학교 동창회
후원: 한인골프협회

벡커 프렌차이스
임시총회및 야유회 공고

심각한 경제난에 불순한 날씨까지 겹쳐 회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읍니다.

본협회에서는 지난주 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및 야유회 개최를 결의했읍니다. 이것은 약간 위축된 것같은 회원간의 단결을 보강하고, 많은 회원이 궁금해 하시는 본사와의 협상 현황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므로회원 여러분께서는 가족및 친지를 동반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하루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협회에서 마련키로 되었으므로 회원들께서는 음료수만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상품도 마련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 Sunny Brook Park
■일 시: 8월7일(토요일) 11시
(우천시는 1주일 연기)

벡커 프렌차이스협회 회장 김 병 진

외국어대학 동문
야유회

82년 여름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 가족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 8일(일) 상오11시
❖장 소: 시리나·군디 공원(Serena Gundy Park: 서니부룩공원안)
(작년과 동일)

※점심은 동문회서 준비.
※각종의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과 상품이 있음.

한국외국어대학 동문회
회장 장 해 웅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 바바라여사

○문: 1년전 캐나다에 온 남편을 따라 얼마전 캐나다에 왔읍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행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읍니다. 남편은 제가 웃을때 손으로 입을가리고 웃는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행동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제생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며, 또 남에게 실례되지도 않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킹스턴 로드, 윤)

●답: 한국여인들의 그와 같은 습관은 제가 한국에 갔을때 매우 인상적이고 매력적이었읍니다. 제 생각에는 귀하의 남편되시는 분은 매우 예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캐나다같은 곳에는 여러민족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도시와는 달리 외국풍속들이 전연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귀하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이중문화」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인들과 사귀고 시간을 같이 보내노라면 귀하도 그들의 행동이나 습관을 저절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식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어색할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은 귀하에게 습관을 강요하기보다는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문: 약6개월전 저희들은 요청하지도 않은 월간지를 받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돌려보냈는데도 계속왔읍니다. 그후 빌을 받았으나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읍니다. 그리고 잡지가 오는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읍니다. 그런데 최근 출판사에서는 콜렉션 에이전시를 통해 돈을 내라고 독촉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위니펙, Mrs 김)

습관 고치려고 성급할건 없고 시간이 해결
주문하지 않은 책등 물건값 내지않는게 당연
할아버지 식사태도 어머니판단에 맡겼으면

●답: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저도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빌을 받은적이 있으며, 어떤때는 받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 빌을 받은적도 있읍니다. 법규에 따르면 귀하는 주문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물건이 귀하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돌려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귀하가 가질 수도 있읍니다.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보낸 회사는 수취인이 물건값을 지불하기를 바라고 계속 빌을 보냅니다. 만약 그 회사가 이경우 콜렉션 에이젠시(귀하의 경우처럼)를 이용 돈을 받으려한다면 그 회사는 주제넘은 회사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그회사(귀하의 경우 잡지회사)에 편지를 쓰고 그 사본을 콜렉션 에이전시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첫째 귀하가 주문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귀하가 원하지 않은 물건중 일부를 되돌려보냈다는 점, 그리고 세째 그 물건에 대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써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지를 간결하지만 직설적이고 강경하게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영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도 있겠지요. 만약 콜렉션 에이전시가 계속 편지로 성가시게 굴면 그 편지에 서명한 사람을 불러 귀하의 편지내용을 이야기 하십시오. 만약 전화로 연락받으면 귀하의 경우를 설명하고 다시는 그런 편지 받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이런 방법은 이미 귀하가 지불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콜렉션·에이전시에 귀하의 돈이 이미 지불된 수표나 또는 편지 원본을 보내지 말고 반드시 사본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반드시 끝날겁니다.

○문: 저의 할아버지는 국을 잡수실때 소리를 몹시 냅니다.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면 당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의 모든 손님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를 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할아버지가 국 잡수실때 소리를 내는한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읍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런말을 하면 버릇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므로 할아버지는 캐나다습관을 어느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벌링턴, 윤)

●답: 귀하의 기분을 이해하겠읍니다.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 말씀이 맞는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식당에서 그렇게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것 같군요. 물론 소리를 내며 식사하는것은 좋지않다는 귀하의 의견은 옳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국을 잡수시는지를 관찰, 미국과 한국의 식사법을 비교해서 말해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어쨌든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의식하는 것이겠지요. 음료를 마실때 소리를 내거나 트림을 한다든지 질긴것을 소리내며 씹거나 국을 먹을때 소리를 내는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것같습니다. 저희들은 음식을 먹을때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지말고 먹으라고 배웠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귀하의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30>

冷血 ⑭

호텔식당서 복부를 걷어채인 그녀는…

『먹으라면 먹어.』

그가 완전히 명령조로 말했다.

그녀는 하는수 없이 젓가락을 집어들고 먹는 척했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자꾸만 주위에 신경이 쓰였다. 심리적인 위축을 느껴 곡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W호텔을 만날 장소로 택하는 것같았다.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다.

『용건이 뭐예요?』

『잔말말고 식사나해.』

그는 정력적으로 먹어대고 있었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아요. 그리고 반말도 삼가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나서 다시 식사를 계속했다.

『용건이 뭐예요?』

그녀는 젓가락을 탁 놓고 몸을 도사렸다. 호텔방에 갇혀있을 때야 나를 때리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이런 곳에서는 감히 그런 짓을 못하겠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차제에 결판을 내고야 말겠다고 다시 굳게 다짐했다.

『용건이 없으면 가겠어요. 앞으로는 다시 전화질하지 마세요. 나오지도 않으려니와 그때는 정말 잡아서 처넣겠어요. 지난 번에는 당했지만 앞으로는 어림없어요. 연약한 여자들 등이나 쳐먹는 당신 같은 인간은 버러지만도 못한 쓰레기예요. 나는 각오하고 있어요. 당신이 내 약점을 쥐고 협박하는 한 그 약점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녀는 백을 들고 일어설 채비를 했다.

『다 말했나?』

그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다.

『다 말했어요. 어쩔거예요?』

그녀는 씩씩거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오른손을 휘둘렀다. 번개처럼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순간적인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었다. 그것은 무지무지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오른쪽으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쪽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그녀는 괴로운 듯 몸을 뒤채다가 의식을 잃었다.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루루 일어나 몰려왔다. 식당은 삽시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여보세요. 식당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배인쯤 되어보이는 사내가 흥분해서 대들었다. 그만 아니라 모두가 흥분하고 있었다.

『여자를 그렇게 때리는법이 어딨어요?』

풍채좋은 중년신사가 힐책하듯 말했다.

모세는 둘러서있는 사람들을 쑥 훑어보았다. 물러서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아니야. 내 여편네 손좀 봐주는데 당신들이 왜 나서서 그래. 시끄럽게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문자를 일으켜 세웠다. 깜박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그녀는 그가 이끄는대로 비틀비틀 걸어갔다.

모세는 카운터에서 사인을 한다음 그녀를 끌고 엘리베이터쪽으로 걸어갔다.

『잠자코 따라와. 말안들으면 죽여버릴테다.』

그는 문자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는 모세라면 충분히 자기 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행동에 더 이상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朴 男 그림

◆잉카제국의 후예도 함께—페루의 리마에서 개최되는 1982미스유니버스대회에 참가중인 각국미인들이 고대 잉카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의 아마스광장에서 치마를입은한농부와포즈를취하고있다. 왼쪽부터말타,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벨기에, 스위스대표. (쿠스코, 페루)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三國志 420

글·高羽榮 그림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여름철 특별세일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45% Off!

Noritake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 656-4315 Mrs. 최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景氣 서서히 풀린다

全經聯조사 7월중 生産·內需·수출 상승세

製造·섬유·建設業 활기

합판·시멘트·酒類등 불투명

6·28조치등 연초이래 잇달아 취해진 일련의 경제활성화대책과 하반기이후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회복기미에 따른 수출증가등에 힘입어 하반기중 주요업종별 경기는 상반기보다 다소나마 좋아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15일 全經聯이 조사, 발표한 주요업종의 월간경기동태에 따르면 7월중 주요업종의 종합경기실사지수(BSI)는 92·5로 지난6월보다 0·2포인트가 상승한것으로 예측됐다.

7월중 생산지수는 6·28조치등에 힘입어 93·9로 6월보다 0·3포인트, 내수는 86·4로 0·4포인트, 수출은 87·7로 0·2포인트등 모두 상승할것으로 예측됐다.

제조업중 청량음료 전제과 기계 신발등은 최근들어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하반기에 가서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대종을 이루고있는 섬유업종의 경우 상반기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 증가한데 그쳤으나 하반기중에는 선진국경기회복기대등에 힘입어 높은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업은 계절적인비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6·28조치등으로 경제활성화대책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있으며 해외건설의경우 東南亞 지역에대한 건설수출이 호조를보여 계속 활기를 띠게될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합판, 시멘트, 주류, 석유화학, 석유정제등은 하반기중에도 계속 경기전망이 불투명하여 시설과잉 상태에있는 합판과 비료는 수출부진으로 일부 휴폐업이 불가피할뿐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될것으로 보인다.

全經聯은 6·28조치가 하반기이후의 경기회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조치가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全대통령, 蠶室야구장 視察

代表선수등과 竣工축하 리셉션

全斗煥 대통령은 15일하오 서울종합운동장野球場준공행사에 참석, 준공테이프를끊고 내부시설을 약1시간동안 돌아봤다.

全대통령은 이날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野球場에 도착, 安瓚熙서울시건설본부장으로부터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의 건설현황을 보고받은뒤 李源京체육부장관, 金聖培서울시장, 金宗鎬국회내무위원장등과 함께 준공테이프를 끊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국가대표 야구선수들과 프로야구球團주, 건설관계자등 97명이참석한 준공축하 리셉션에서『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수준의 야구장을 가진것은 모든국민이 기쁘게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일』이라고 말하고『이러한 훌륭한시설은 선수들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이 자기것과같이 생각하고 관리를잘해 오래보존하는것이 더욱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관람석과 운동장, 선수탈의실, 실내연습장, 회의실, 컴퓨터실등 내부시설을 돌아봤다.

外貨貸出대상을 확대

內需用시설재 輸入대금등 추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국내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소화가 부진한 외화대출을촉진하기위해 외화대부 용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金通運委는 15일「외화대출취급규정」및「원리금상환용 특별외화대출취급규정」을 개정, 중장기외화대출의 용자대상에 내수용시설재및 전원개발용기자재의 수입대금, 기술용역대금등을 추가했다.

또 단기현금차관 형식으로 도입되는 외화자금 차입원리금 상환자금도 특별외화대출을 받을수있게했다.

金通運委는 또 외화대부의 용자대상업체도 확대하여 지금까지「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외화획득업체」만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던것을「국제수지에 기여하는 업체」로 바꾸어 외화획득업체가 아닌 수입대체산업도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했다.

韓銀집계에 의하면 5월말 현재 외화대출액은 2억5천만달러로 올해대출한도인 13억달러의 19%에 불과, 실적이 부진한데 韓銀관계자는 외화대출수요의 부진은 현행 외화대출금리가 年16·5%(유로달러금리기준)로 국내 대출금리 10%보다 6·5%나 높아 기업들이 외화대출을 기피하고 계속된 불경기로 시설투자를 하지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금통운위는 이밖에 현재 5년이상 10년이내로 되어있는 중장기대출의 용자기간을 10년이내로 단일화하여 용자기간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하고 원리금상환용외화대출의 취급은행을 甲類점포뿐아니라 乙類점포에서도 취급할수 있도록했다.

금통운위는또 원면등 주요원자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77년신설된 특별외화대출제도와 개발도상국에대한 연불수출을 지원하기위해 78년신설된 중단기연불수출지원외화대출제도는 수년간 취급실적이없어 폐지키로했다.

"實名去來制 補完후施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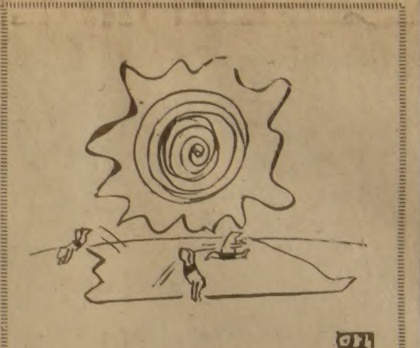
權 民正總長

【大邱=黃昭雄기자】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은 15일「7·3조치」와 관련,『預金등의 實名去來制는 국민에게 불편을주거나 경제를 梗塞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慶北道지부 순시차 大邱에 들른 權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民正黨은 정부측이 발표한 實名去來制를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보완대책을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이어 實名去來制는 民正黨의 이념인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하며 실시시기도 정부案대로내년7월1일부터 실시돼야한다고 전제한후『다만 실시과정과 방법에있어 정부案은무리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탄력성있게 운영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역설했다.

社會漫評



오늘 初伏

오늘 外務委

국회는 16일 하오2시 外務委를 열고 韓·日經協문제와 李範錫외무장관의 최근 訪美, 訪日 결과에 따른 문제및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한 국제정세 동향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바스라港서 최대接戰

이란 "이라크領25km 진격·교두보 확보"

이라크 "이란軍司令官 사살·數百명 포로"

【니코시아·알카라14日AP·時事】이란軍의 이라크領토침공으로 다시 불붙은 이란·이라크戰은 쌍방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이라크의 주요원유 수출항 바스라 7km 지점에서의 지상전과 민간인거주지역에 대한 폭격전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이란軍코뮈니케는 이날 이란軍이 이라크軍 2개사단과 1개여단을 섬멸하고 일부지역에서 이라크領 25km까지 진격,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蘇製인 신예T72전차 20여대를 파괴하거나 노획하는 한편 수천명의 이라크軍을 사살 또는 포로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라크軍 코뮈니케는 이라크軍이 이란軍의공격을 성공적으로 저지, 반격을 펴고 있으며 이라크영내 국경지역에서 이란軍을 포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軍성명은 또 이라크軍이 이란軍주력부대의 일부를 섬멸,「라마단(禁食月)작전」을 지휘중이던 이란軍사령관을 포함한 다수의 참모를 사살하고 수백명의 이란軍을 생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전에 이어 이날 이라크 전투기들이 西部이란의 호라마바드, 일람, 바크타란등에 폭격을가해 민간인36명이 죽고 4백27명이 부상했다고 이란軍코뮈니케는 비난하고 이란機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스라와 아부·알·카십의 민간인거주지역과 주요경제시설에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란機들은 이밖에도 바스라근처의 공중전에서 4대의 이라크機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軍 코뮈니케는 앞서「이라크를 해방시키기위해」이란軍이 이라크를 진격, 이라크수도 바그다드에서 4백80km, 이란국경에서 25km 떨어진 바스라근교에 교두보를 구축중이라 발표하고「라마단작전」으로 명명된 이번의 이라크진격작전이『이라크의 해방을통해 시온주의자들의 지배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킬때까지 계속될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이란의 최고실력자 아야툴라·호메이니옹은 테헤란방송을 통한 연설에서『이라크 국민들은 봉기하여 회교의 적들을 공격하라』고 자극하고『이라크의 회교도 시주민들과 청년, 그리고 軍은 그들을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환영하라』고 촉구했다.

美, 中立입장宣言 戰爭중지를 促求

【워싱턴14日UPI·聯合】美國은 14일 이란의 對이라크월경공격으로 재개된 페르시아灣戰의 즉각종식을 촉구하고 이번전쟁과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란·이라크戰地域 僑民對策委를 구성

외무부는 15일 이란·이라크戰의 확대에따라 이라크지역의 우리근로자와 僑民들의 보호를위해 李昌洙차관보를 팀장으로하는 僑民대책위원회를구성, 이날하오 외무부에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노동부등 관계부처局長들과 첫회의를 갖고 현지교민들의 안전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戰況을예의주시해가며 교민들의 피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세운것으로 알려졌다.

한국勤勞者는 안전지대에

8개業體에 1만5천여명

현재 이라크에는 現代, 大林, 共榮, 漢陽, 정우개발, 한일, 東亞, 三星종합건설등 8개 해외건설업체가진출, 28건(계약고25억달러)의공사를 시공중이다.

지난77년 신원개발(후에三星종합건설로흡수)이 첫진출했으나 그후 별로진출실적이 없다가 지난해부터 한국업체의진출이 본격화되고있다.

제일큰공사현장으로는 現代가 수도바그다드시내에 건설하는 4억1천만달러짜리 사아드23주택공사를비롯, 주로주택과병원, 도시정비, 재개발공사등을맡아 공사중이며 약간의도로공사도 하고있다.

이라크 건설현장에나가 있는 한국인근로자는 모두 1만5천명가량. 이들은 바스라접경지역과 가까운곳에 現代건설의 공사현장이 있는것을 빼고는 대부분회사의 공사현장이 안전지대에위치, 전쟁을 실감하지못할정도로 평온한상태라는것이 현지의보고다.

3黨대표會談에 앞서

實務회의 갖기로

3黨代表 어제會同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 柳致松民韓黨총재, 金鍾哲국민당총재등 3黨대표는 15일하오 모임을 갖고 각당에서 2명씩 선임한 6명의 實務陣으로 實務會議를 구성, 3黨대표회담에 앞서 실무차원의 협의를 먼저하기로 했다.

丁來赫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이날 泰陵골프장에서 오찬과 골프모임을 겸해 열린 3黨대표會同에서 이들은 앞으로 實務회의에서 各黨의 의견을 교환·협의하고 이결과에 따라 3黨대표회담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정식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가까운시일내에 대표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것 같다.

3黨대표들은 또 6·28및 7·3經濟조치등을 논의하기위해 국회 財務및 商工委의 개최문제는 총무회담을통해 소집시기등을 결정토록했다.

뮤지컬 아동극 파브르의「곤충기」

달려라 티나 한국公演

한국일보社는 한국국제문화협회·롯데제과와 함께 일본의 대표적인 극예술단체인 극단「호리호크·아카데미」를 초청, 오는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公演을 갖습니다.

지난81년 11월에도 내한하여 뮤지컬「춘향전」을 공연한바 있는 호리호크 劇團은 1932년 창단되어 수많은 정상급 연극인들을 배출해 냈읍니다. 이번에 공연하게될 아동극「곤충기」는 장·앙리·파브르의 名作昆虫記를 日本人作家가 각색, 숲속의 곤충세계를 의인화하여 그들사이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그리고 갈등과 비리등을 그려내고 있읍니다.

本公演은 특히 姉妹紙 소년한국일보의 창간22주년을 맞아 (주)롯데제과·한국국제문화협회가 兒童들에 의한 兒童들만의 兒童劇활동이 부진한 극예술계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기획하였으며, 폐사는「소년한국」의 창간을 기념하여 전공연을 무료공개할 예정입니다. 더우기 이번 來韓公演은 日本萬國博覽會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어린이를 通한 韓·日兩國間의 友宜를 다지는데 큰역할을 했읍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聲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연일시 1회:7·18(일) 15시
2회:7·19(월) 15시
(입장권 배포계획은 별도발표함)
△공연장소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主催: 한국일보社
롯데제과주식회사
국제문화협회
後援: 대한항공(주)

「소년한국」創刊22돌기념 18·19일 세종회관서無料로

美上院 외교委 인준 슐츠任命

【워싱턴14日=聯合】조지·슐츠 신임 美국무장관 지명자는 14일 美·중공간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해 미국의 對韓방위공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슐츠씨는 자신의 국무장관 임명인준에 관한 상원외교위의 이틀째 마지막청문회에서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견해를 묻는 한의원의질문에 주한미군철수와 관련, 美·中共에간 견해차가 있음을 시인했다.

地平線

토지·노동·자본을 생산의 3대요소로 잡는다. 이중 하나가 빠져도 생산활동은 기대 못한다. 스포츠도 비슷한것으로 생각해본다. 경기장 없는 스포츠는 상상할수 없다. 선수나 관중은 경기장이 있어야 존재할수 있다. 스페인 월드컵 열풍이 떠들썩한 화제를 일으키고 지나갔다. 밤잠과 새벽잠을 설치며 텔리비전 중계에 매달렸다. ▼한판 한판의 승부가 숨가빠 지경이었다. 우리가 부러움을 느낀것은 경기내용과 함께 경기장의「威容」이었다. 카페트 같은 잔디와 꽉 들어찬 관중석에 압도 당할것만 같았다. 결승전이 벌어진 마드리드의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은 관중 12만5천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다. 이거대한 스타디움은 파란많은 월드컵 대회의 추억을 남기고 헐리게 된다. 도심에 위치해 주차시설등이 모자라는 탓이라고한다. ▼또 하나 관심을끄는 경기장은 84년올림픽이 열릴 로스앤젤레스의 메모리얼 콜러시엄이다. 미국최대 종합경기장으로 32년 올림픽을 치렀다. 당시 수용능력은 9만여명, 84년엔 12만명을 맞아들이려고 금년안에 증축을 끝낸다. 야구의나라 미국에선 특히 프로야구 전용구장이 관광명소다. 뉴욕의 양키즈 스타디움은 너무나 유명하고 시카고의 리글리필드 야구장은 유일하게 야간조명시설이 없는 곳으로 이름났다. 부근 주민들의 밤잠을 방해안하려는 배려다. ▼옥내야구장도 세곳이나 있다. 처음 만든것은 휴스턴의 에스트로돔으로 수용인원은 4만6천 정도다. 외관도 훌륭한 예술품으로 보인다. 인조잔디가 깔린 전천후시설이다. 우리나라에 널리알려진 일본의 야구장은 甲子園과後樂園을 들수 있겠다. 반세기가까운 甲子園구장은 처음부터 고교야구를 위한 구장이었다. 개장때 벌써 5만여명을 수용한 동양제일이었다고 우쭐댔다. ▼우리나라 야구도 그라운드의 숨통이 크게 트였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잠실야구장이 어제 문을 열었다. 규모도 크지만 현대적 시설의 메커니즘이 완비 되었다. 오는 9월 세계야구선수권대회가 여기서 큰 잔치를 벌일 것이다. 한국야구의 産室적인 서울운동장야구장이「보조」로 쓰인다니 새삼「隔世」를 느끼게 된다.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잠실운동장 주변이 앞으로 스포츠 공원화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울창한 숲으로 덮인 공해 없는 시민의 휴식처를 여기에 오버랩 시켜 본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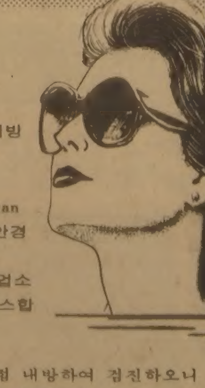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블루어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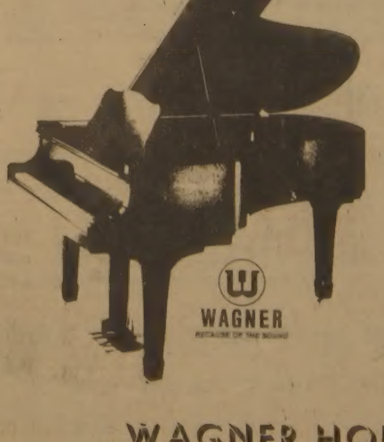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수리·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성희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의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다시 불붙은 페灣

「회교革命」불똥튈까

석유 市場

長期化땐 安定기조 흔들려 惡化면 石油시설 폭파가능

새로운 국면을맞은 이란·이라크전쟁은 交戰당사국외에도 다른 아랍산유국까지 전쟁회오리에 휘말려들 가능성마저 내포하고있을뿐아니라 만일 장기화되면 세계원유시장의 안정기조도 위협받을여지가있다.

같은 산유회교국이지만 이란은 엄연히 인종적으로다른 페르시안국가이며 이라크는 아랍국가이다. 따라서 이라크가 위태롭게되면 분쟁을 아랍민족對 異民族간 대결로보고 아랍권의 단결을 자극할수도있다. 아랍국가중 이란과 가장친한 시리아도 이란이 이라크를 침공할경우 이란과 손을끊고 숙적이지만 이라크를도울것이라고 천명해왔다.

특히 페르시아灣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聯合(UAE)를 비롯한 온건보수주의노선을걷는 王政국가들은 이란지도자 호메이니翁이 팔레비왕정을 붕괴시킨 여세를몰아 회교혁명운동을 다른 아랍국가에로 확산시키려 시도하고 있는데대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 쿠웨이트등 産油富國은 이란·이라크전이 발발한 이후 이라크에 약3백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왔다.

현재로선 이란이 어디까지 전쟁을 몰고갈것이며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호하지만 만약 이란군이 바그다드까지 진격해 들어갈경우 온건아랍국들은 어떤형태로든지 개입하지 않을수없게된다. 특히 사우디는 이라크에 후세인정권이 무너지고 친이란정권이 수립될 경우 이란·이라크연합세력에 OPEC(석유수출국기구)내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UAE등 페르시아만국가들의 군사력은 군대를 과견할만큼 강력하지못하기때문에 군사장비지원에 국한하거나 미국등 강대국에 전쟁의 종식을 중재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군사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사우디나 쿠웨이트가 직접 참전하거나 또는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재정·군사장비지원에대한 보복으로 사우디나 쿠웨이트의 유전지역을 공습할것으로 보고있지는 않으나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가능성을 배제할수 만은 없다고 말하고있다.

아랍국가들은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위협뿐 아니라 이란의 회교혁명에 자극, 자국의 시어파 회교도들이 반정부소요를 일으킬 것에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고있다. 이란회교혁명의 주도세력인 시어파교도들은 바레인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쿠웨이트 UAE 카타르 사우디등 산유국에서 상당한 소수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이라크침공이 국제석유시장에 직접적인 큰변화는 가져올것 같지는 않다. 현재 하루80만배럴을 생산하고있는 이라크의 해상수출로가 이란에의해 막혀버렸지만 터키국경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부족량은 석유판매량을 증대시키기위해 애쓰고있는 사우디 쿠웨이트등 다른산유국이 이를 충분히 보충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석유전문가는 이라크가 궁지에 몰릴경우 이란의 주요원유선적장인 하르그섬을 폭격할 가능성이있고 그렇게되면 현재2백20만배럴의 원유를수출하고있는 이란의 원유공급의길은 막혀버려 석유시장에 적지않은 파문이 올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석유시장전문가들은 이란·이라크전이 끝날때의 상황에 대해더관심을 쏟고있다. 【崔浩雲기자】

◇이란군의 침공에 맞서 박격포로 반격하고 있는 이라크군。

王政국가들 非常

이란 속셈

經濟혼란틈탄 시어派지원 후세인몰락 革命수출겨냥

이란군은 마침내 국경을 넘었다. 이란-이라크전쟁의 성격이 이라크과 주도권을 쥔 「覇權쟁탈전쟁」에서 이란이 이주도권을 빼앗은 「회교革命수출전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란은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出口이자 경유시설이 밀집해져있는 바스라港지역 점령을 제1차 목표로 삼고있다.

원유에 기반을 두고있는 이라크 경제를 마비시킴은 물론 이라크의 페르시아만 出口를 봉쇄하고 쿠웨이트로부터의 무기공급로를 차단하여 후세인정권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하여 국내에서 봄기라도 일어나 정권이 붕괴하면 바그다드에 이란회교정부가 지원하는 시어파회교혁명정부를 수립하겠다는게 이란이 노리는바라고 분석되고있다.

그다음 이란은 회교혁명수출을 이라크에만 국한시키지않고 사우디,요르단등 인접 페르시아만 왕정국가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장기적 전략도 가지고있다.

이란측은 또 이번침공의 또다른 이유가 이란군대가 이라크를 통과하여 레바논에 침공해있는 이스라엘군을 몰아내는데 있다고 밝히고있다.

이란은 西베이루트에 포위되어있는 회교형제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軍을 돕기위해 지원병을파병하겠다고 선언한 유일한 국가이다.

이란의 이라크 영토침공은 지난5월 이란이 이라크에 빼앗겼던 전략요충지인 호람샤르를 탈환했을때부터 예견되어 왔었다.

이란의 호람샤르 탈환으로 수세에몰린 후세인대통령은 이란영토에있는 모든 이라크군철수를 결정하고 계속해서 이란에 휴전을제의해왔다.

이때부터 이란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전쟁목표를 후세인정권의 타도와 이라크내의 회교혁명정부 수립으로 결정했다.

이란이 쉽사리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세인은 한편으로 휴전제스처를 보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침공에 착실히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군은 이란영토에서 퇴각할 때 모든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어 별다른 전력손실은 입지않았으며 후세인은 이라크군부와 집권바트당의 재정비에 성공, 국내의 권력기반을 다져 놓았다.

후세인은 이라크 군부에서 자신의 군사전략에 의문을 품거나 충성을 서약하지않는 장교를 제거시켰으며 바트당인사에서도 자신의 지지자를 대폭 기용함으로써 지위강화에 성공했다. 이란은 그바람에 부당하게 추방당한 10만명을 귀국시켜야 한다고 終戰조건을 덧붙여 놓고있다.

또 이라크군이 이란영토내에서는 이란군에 패배하긴했지만 침략을받는 입장에 몰려 자기나라를 수호하기위해 이란군과 자기땅에서 다시 싸울때는 훨씬 더 강한 전투력을 과시할지도 모른다.

이란영내에서의 전쟁이 그랬듯이 이라크영내로 무대를 옮긴 새전쟁 역시 장기화될 여지가 보인다. 【李炳圭기자】

兩國 전력비교

이라크 正規軍25만·함정32隻

▲정규군=25만2천2백50명(이라크軍 최고사령부는 지난 1월 병력수를 38만명으로 밝혔다)이라크軍은 이외에 25만명의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으며 4천8백명의 국가보안군을 보유.

▲육군=4개기갑사단、4개기계화사단、4개산악보병사단、1개기갑여단、3개 특수기갑 야전부대들로 구성돼 있다.

▲공군=주로 소련제와 프랑스製항공기들로 미그23기 75대로 구성된 4개비행대대·SU20機 80대로 구성된 6개비행대대·영국제전투기 12대로 구성된 1개비행대대등 3백35대의 전투기를 보유。이라크 공군은 이외에도 蘇聯에 1백50대의 미그기와 프랑스에 60대의 미라지F1機를 새로이 주문、이중 약 30대의 미라지機는 이라크에 인도 되었다. 이밖에 약60대의 프랑스製 헬리콥터로 구성된 헬리콥터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4천2백50명의 병력을 가진 해군은 완전히 소련제함정들로 구성돼있으며 프리기트함1척、초계정5척、해안경비함2척、艦對艦미사일적재고속艇12척、기뢰제거함8척및 상륙함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灣의 바스라와움콰스르港에 2개의 해군기지를 갖고있다.

이란 正規軍19만·飛機55대

【파리14日AP=聯】14일이라크 영내로 진격한 이란軍은 이라크에 비해 군사력은 열세이다.

81·82 제인 군사연감에 나타난 이란과 이라크의 군사력을 살펴본다.

▲정규군=19만5천명과 準군사요원 7만5천명. 정규군의 60~80%는 지원병들로구성돼있으며그밖에 40만명의 『혁명수비대』를 예비병력으로가지고있다.

▲육군=4개기갑사단·4개보병사단·1개공수사단및 地對空 호크 미사일을 장비한 4개포병부대로 구성돼있다. 육군은 또한 미국제 드래곤 미사일、M K탱크 6백20대、영국제 경전차 스코피온 2백20대를 보유.

▲공군=세스나 185 전투기 40대、세스나 310機 6대、미국제 슈라이크 지휘機 5대、프랑스제 포콩機 2대、네덜란드제 F27機 2대.

▲해군=艦對艦미사일적재 구축함 3척、시캐트艦對空미사일적재구축함 1척및 섬터 上陸艦2척.

中共、4년內 臺灣을 침공

秘密문서를入手

【臺北14日韓=聯】중공은오는 85~86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대만이 입수한 중공의 비밀문서가 시사하고있다고 한 軍지도자가 13일 말했다.

자유중국 국방부 군사기획부장인 샤오·티엔중장은 臺北에서 열리고있는 국가발전세미나에서 국방정책에 관해 보고하는 가운데 중공이 대만공격의 가장 좋은 시기를 앞으로 3~4년 안으로 보고있는것으로 비밀문서에서 시사되고있다고 말했으나 대만이 중공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밀문서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중공이 왜 오는 85~86년을 대만침공의 최적기로 보고있는지는 밝히지않았다.

"全外國軍 철수하라"

레바논、多國籍평화군만 駐屯요구

【베이루트14日AP·UPI=聯】레바논정부는 14일 레바논위기후 처음으로 공식성명을 통해 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시리아軍의 철수를 공식 요구하고 다국적평화유지군의 레바논주둔을 촉구했다.

레바논정부의 이같은 성명은 이스라엘전투기들이 西베이루트내 PLO거지상공을 위협적으로 저공비행하고있는가운데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3시간동안의 閣議가 끝난후 발표된것으로 이는 강력한 레바논 중앙정부와 레바논정규군의 권위가 회복돼야한다는 레이건美 대통령정책을 반영한것이다.

이 성명은 PLO의 베이루트철수를 감시하기위해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불러들이기로한 샤피크·와잔 수상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레바논주둔 모든외국군의 철수를 촉구했다.

한편 레바논 평화협상이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가운데 이스라엘은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에게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수있도록 더 많은시간을 주기로결정했으며 PLO의장 야세르·아라파트 또한 하페즈·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PLO게릴라들이 시리아로 가고싶다는 뜻을 공식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佛、軍事力 대폭 증강

미테랑 安保 1차로 自體力에 의존

【파리14日UPI=聯】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프랑스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바스티유 감옥습격사건 기념일(바스티유의 날) 1백93주년을 맞아 핵군비확충을 비롯、프랑스의 전반적인 군사력증강을 다짐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이날아침 파리에서 군의 시가행진을참관하는 관례를 깨고 룰롱으로가 프랑스지중해함대를 사열『현재와 같은 혼란된 세계정세속에서 프랑스의 안보는 1차적으로 자체방위력에 의존한다』고 전제、『핵무기는 더욱 현대화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재래식군사력도 계속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테랑정부는 작년 기념식에서는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시사하는정도에 그쳤으나 금년기념식에서는 프랑스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日漁船 1隻 北傀 또나포

【東京14日UPI·聯=聯】북괴는 지난13일 2척의 일본어선을 납치한데 이어 14일 또다시 동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일본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일본해상보안청이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7명의 어부를 태운 일본어선 준요시호(56톤급)가 이날 북괴와소련이 다같이 그들의 경제수역이라 주장하는 공해상에서 조업도중 나포됐다고말했다.

북괴는 이로써 지난13일 鬱陵島동북 1백70마일 공해상에서 어부35명이 탄 한국어선 馬山號를 납치한것을비롯、13·14일 이틀동안 한국어선 1척과 日本어선 3척등 모두 4척(어부 53명)을 나포했다.

北傀、어선拉北함구

【서울=聯】北傀는 지난13일낮 12시5분 울릉도東北方 1백70마일 公海上에서 조업중인 제5馬山號와 승선어부 35명을 무장경비정에의해 拉北해간지 만하루가지난 14일하오 현재까지 拉北사실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고 있다.

軍國주의 基調

蘇、日교과서非難

【東京15日=聯】소련은15일 일본문부성이 검인정한 83학년도 국민학교및 고등학교교과서에 대해 「군국주의와 大國 쇼비니즘(배타적 군국주의)을 기조로한 이데올로기의 세뇌공작」이라고 비난했다고對蘇전문통신인일본의라디오프레스가이날보도했다.

소련방송만을 전문적으로 청취、보도하는 이통신은 이날소련의 모스크바방송이 역사의 위조라는논평을통해 이같이 일본의 검인정교과서를 비난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모스크바방송은『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주요목적은 군국주의나 국수주의사상을 청소년에게 그대로 주입시키는데있다』고 지적하고『이때문에 일본은 청소년들에게 무지를 확산시키는이같은교과서가필요한것』이라고강조했다고덧붙였다.

메아리

初伏

오늘은 初伏이다. 夏至부터 쳐서 세째庚日을 初伏、그다음 庚日을 中伏、立秋후 닥치는 첫庚日을 末伏이라한다. 그동안 연중 가장 심한혹서、즉 三伏더위를 겪게된다.

옛날에는 伏더위를 잊기위해 흔히 酒肴를 장만하여 山과 냇물을 찾았다. 宮中에서는 氷票를 하사하여 藏氷庫에서 얼음을 타쓰게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한때는 더위를 쫓기위해 鷄蔘湯을 먹는것을 인습으로 삼았다.

그러나 어느새 陰陽五行說에 따라 火(夏)를 쫓아버리고 쇠퇴한 기운을 채우는데는「金」밖에 없다하여 金기운이 넘치는 구(狗)탕을 金(庚)의날에 먹는 풍습이 생겨났다. 아직도 복날이 되면 개장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지않은것은 이런 내력때문일 것이다.

그러고보면 三伏철은 개의 한 受難期라고 할법하다. 한데 外電을 보면 蘇聯의 개들은 여름아닌 자년 겨울에 한차례 모진 難을 당했다고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겨울만 되면 犬公들의 이런 봉변이 거듭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 내용인즉、작년 말께 소련서는 「非生産的가축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한다.

3년 내리 흉작이 든 소련이고보니 개 먹일것이 궁핍해진데서 만들어진 법률인듯하다. 한데 그 시행과 더불어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는 마리당 연간2백81달러의 養畜稅를 내도록 된것이다. 쉽게말하여 웬만한 技能工의 한달치 봉급과 맞먹는 세금이 물게된셈이다.

소련사람들이 겨울에 둘러쓰는 샤프카란 털모자도 毛皮不足때문에 근래는 개털로 만들어 파는자가 없지않게됐다는데 이경우 털은 훔친 개의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모스크바 겨울거리에 개도둑이 횡행하고보면 경찰이 바빠질일 또한 자명해진다. 「개도둑 몇10명 검거」라는 기사와 함께 「80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별난 일」이라는 독자투고가 그곳신문에 실렸다고(콤소모리스카야·프라우다紙) 하니 사실임에 틀림없다.

愛玩物학대행위는 많은사람의 빈축을 사게되는것이 오늘의 추세다. 그어떤 사유에서든 개를 못살게 구는 현상은 이제부터 한번더 생각해봐야할듯하다. 서울市당국이 지난3월 도심 큰길가의 뱀집、보신탕집을 뒷골목으로 옮기도록 권유한 조치도 그 초단계로 통할듯한데서 복날전야에 문득 되새겨진다.

일본 自衛隊에 不正시험 波紋

장교가 돈받고 시험지빼내팔아

前職간부도 끼어 10년전부터 流出

共犯 3명 추가구속… 事件확대

작은 수치에도 할복을서슴지않던 사무라이의 후예 일본 自衛隊 장교가 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문제를 훔쳐 수험생에게 돈을받고 판 사실이 밝혀져 일본사회에 큰충격을 주고있다.

자위대수사당국은 지난 6월4일 실시된 선발시험에서 문제가 누설됐다는 첩보를 입수, 陸上자위대 北部方面隊 삿뽀로(札幌)소속 이나바(稻葉厚美·43)대위(一等陸尉)를 절도혐의로 구속,수사중이었다. 그러나 이사실이 지난12일 외부에밝혀지자 13일 다시 3명의 공범장교를 추가로 구속、사건이 확대되고있다.

이제까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나바등 4명의장교는 병원사무실에 보관된 시험문제지를 훔쳐내 복사한뒤 이를 응시대원 10여명에게 최고 20만엔(약6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또 이문제유출은 前職자위대간부도 끼여 약10년전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된 흔적이 보여 일본防衛廳당국과 자위대 지도부를 더욱 당혹케 하고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주범 이나바가 범행할당시 문제지가 보관돼있던 삿뽀로지구병원 사무실은 열쇠가잠겨있었으나 이나바는 당직실에서 열쇠를꺼내 사무실을열고 들어가 인사부장책상 서랍에서 열쇠를 훔쳐 문제지가 들어있는 캐비니트를 열었다. 시험문제는 봉투에 넣어 풀로 붙인뒤 그위에 다시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는데 이나바는 봉투밑부분의 풀로 붙인곳을 떼고 문제지를 꺼내 복사했다.

◇간부후보생 선발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발칵 뒤집힌 일본自衛隊 삿뽀로주둔 北部方面隊홍보실.

또 이나바는 문제지를 처음 훔친것이 약10년이었다고 진술、시험문제의 유출이 오래전부터 계속돼왔음이 밝혀졌다. 이나바는 지난 1959년 하사관시절부터 자위대 북부방면에서 인사관계를 담당、장교로서 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있을때마다 시험문제를 빼낸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범행동기에 대한 이나바는『좋아하는 부하를 좋은위치에 발탁되게 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번 시험문제가 다른3명의 장교와 前職자위대원에 의해 수험대원에게 수만엔에서 최고 20만엔에 팔렸음이 추가 구속된 공범에 의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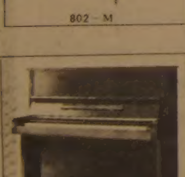
사고가 난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하사관에서 장교로 승진하는데 반드시 통과해야할 시험으로 매년 응시자에게 학과시험을 실시한 후 근무성적、체력시험등을 참조、가을에 최종합격자를 확정하는데 학과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0%로 돼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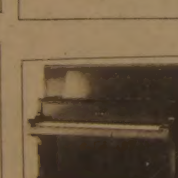
올해는 전국에서 모두2만4천여명이 이시험에 응시했으나 선발인원은 겨우 3백40명으로 70대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이었다. 【朴贊式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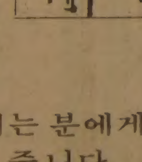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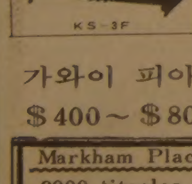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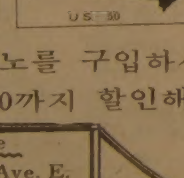
그랜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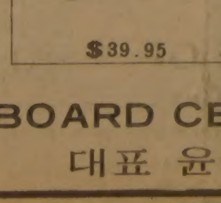




가와이 피아노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400~$800까지 할인해 줍니다.

여름철특별대매출

BONTEMPI이태리안 올갠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 기간 : 7월7일~8월25일 ~

특수과목 : THE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표 윤 호 섭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世界대회 대비 男子排球 초긴장

각국마다 親善경기통해 戰力탐색

◆남자배구 국제대회 성적

◆올림픽

연도	개최지	1위	2위	3위	비고
64	동경	소련	체코	일본	⑩한국
68	멕시코	소련	일본	체코	
72	뮌헨	일본	동독	소련	⑦한국
76	몬트리올	폴란드	소련	쿠바	⑧한국
80	모스크바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계선수권

연도	개최지	1위	2위	3위	비고
49	프라하	소련	체코	불가리아	
52	모스크바	소련	체코	불가리아	
56	파리	체코	루마니아	소련	
60	리오데자네이로	소련	체코	루마니아	
62	모스크바	소련	체코	루마니아	
66	프라하	체코	루마니아	소련	
70	소피아	동독	불가리아	일본	
74	멕시코	폴란드	소련	일본	⑬한국
78	로마	소련	이탈리아	쿠바	④한국

◆월드컵

연도	개최지	1위	2위	3위	비고
65	바르샤바	소련	폴란드	체코	
69	동베를린	동독	일본	소련	
77	동경	소련	일본	쿠바	⑦한국
81	동경	소련	쿠바	브라질	

◆아시안게임

연도	개최지	1위	2위	3위	비고
58	동경	일본	이란	인도	
62	자카르타	일본	한국	자유중국	9인제
		일본	인도	파키스탄	⑤한국
		일본	한국	필리핀	9인제
66	방콕	일본	한국	이란	
70	방콕	일본	한국	자유중국	
74	테헤란	일본	한국	중공	
78	방콕	한국	일본	중공	

오는 10월 아르헨티나서 열리는 제10회 세계 남자배구선수권대회와 11월의 印度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각국대표팀들은 눈에 불을 켜고 강화훈련을 벌이고 있다. 라이벌팀 간의 공식·비공식 전력 탐색경기가 빈번히 펼쳐지고 있으며, 브라질 대표팀에이어서 미국·캐나다와 印度팀이 서울을 방문, 현재 한국과 친선경기를 하고 있다. 세계남자배구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세계남자배구의 최강은 蘇聯. 소련은 5번의 올림픽가운데 72년(뮌헨)과 76년(몬트리올)을 제외하고 3번이나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9번의 세계선수권 가운데 5번을, 4번의 월드컵 대회에서 3번씩이나 우승을 차지했다.

70년대 초·중반 한때 정상에서 잠시 물러난 적이 있으나 77년부터 다시 정상자리를 되찾았다. 소련을 세계최강으로 다시올려놓은 선수는 알렉산더·사빈. 76년 몬트리올 올림픽때 처음 대표선수로 발탁된 사빈은 그해엔 별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듬해 日本서 열린 월드컵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 정상복귀에 원동력이됐다. 2m의 신장과 파워를 바탕으로 내리꽂는 오픈공격은 상대 블로킹도 무력하게 만든다. 점프력도 위협적이다. 뛰어오르면 네트상단부가 사빈의 가슴아래에 있다. 특히 상대속공을 블로킹하는 성공률이 90%이상이다. 57년 7월1일생이므로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서 선수로서의 피크를 이룰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4~5년간 계속 선수로 활약할 것같다.

이번 세계선수권서 누가준우승을 차지할 것인가. 대회가 끝날때까지 장담할수 없다.

2위부터 10위까지는 한마디로 종이한장 차이다. 최근 세계각종대회의 성적을 보면 더욱 그렇다.

77년 월드컵 2위는 개최국 日本에 돌아갔다. 78년 세계선수권서는 역시 개최국인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그러나 80년 올림픽서는 전년도 세계2위 이탈리아가 9위로 떨어졌으며 불가리아가 2위. 지난해 월드컵서는 카리브海의 「갈색 돌풍」 쿠바가 2위였다.

쿠바는 77년 월드컵, 78년 세계선수권서 각각 3위를 차지한 경력이 있고 81년 월드컵서는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80년 올림픽서는 7위로 처졌다.

◇소련의 간판선수 사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남자대표팀도 2위로 올라설수도있고 10위로 떨어질 가능성도 함께안고있다.

76년 몬트리올올림픽서 한국은 폴란드와 서전서 격돌, 풀세트접전끝에 패배했다. 한국은 몬트리올서 6위를 차지했고 폴란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78년 세계선수권서는 한국이 蘇聯·이탈리아·쿠바에이어 4위를 차지했다. 개최국 이탈리아의 텃세만 없었더라도 한국은 2위까지 오를수 있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다.

몬트리올 올림픽서 금메달을 땄던 폴란드는 로마세계선수권서는 8위로 떨어졌다.

蘇、사빈健在 최강 자랑

韓·伊·쿠바·波등 2位다툼 예상

지난 5월 日本서 열린 NHK컵서 한국은 지난해 월드컵 2위팀 쿠바를 3-1로 꺾었다. 77년 모스크바U대회서 3-1로 패배한이래 7連敗를 거듭하다가 9년만에 설욕, 「쿠바콤플렉스」에서 벗어났다. 쿠바는 갈색고무공이라고 불릴만큼 선수들의 탄력이 뛰어나다. 특히 196cm의 안토니오·페레즈의 오픈강타는 위력적이다. 78년 세계선수권과 80년 올림픽을 거친 26세의 페레즈는 이제 완숙의 경지에있다.

南美의브라질은 지난 10일 서울서 한국에 3-1로 패했으나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다.

지난해 월드컵서 쿠바에이어 3위를 차지했다. 브라질은 지난 월드컵이후 3명의 장신선수를 보강했다. 윌메스트(22세·193cm) 산도(21세·194cm) 아밀라(27세·198cm)가 뉴페이스다.

특히 윌메스트와 산도는 국가대표로 발탁되자마자 베스트에 끼일만큼 뛰어나다.

최근 월드컵 2·3위팀을 내리 격파, 상승세에있던 한국은 대단치않게 봤던 美國에 이번 서울대회서 3-0으로 패했다.

브라질은 서울에 오기전 中共에서 벌어진 上海국제대회에서 中共에 3-1로 패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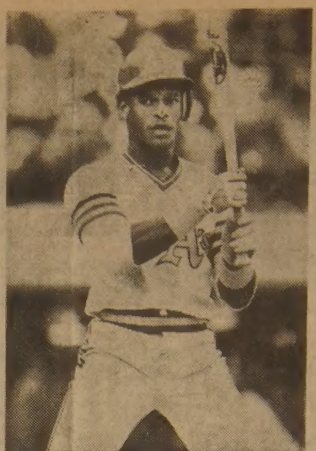
따라서 2~10위까지의 순위는 대회 당일의 컨디션과 심판판정 현지 적응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분명히 한국남자배구는 강해졌다. 예년과 달리 공격포메이션이 다양하다. 오픈공격수와 속공플레이어가 고정돼있지않다. 어디서 어떤 공격이 펼쳐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같은 전력도 姜斗泰·柳重卓·李鍾範이 모두 코트에 나설때의 얘기다.

姜斗泰는 오픈공격에서 보다 블로킹으로 더큰 기여를 하는 선수다. 柳重卓도 마찬가지다.

오는11월 印度 아시안게임도 우리에게는 세계선수권못지않게 비중이 큰 대회다. 中共과 日本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라이벌관계를 지속해왔다. 中共은 이번 上海대회때 余炎森을 대표선수로 발탁했다. 余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한번도 베스트에 기용되지 않아 기량은 뛰어나지 않으리라는 추측이다.

한국으로서는 부상중인 선수들이 언제 완쾌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들 대신 코트에 나설 나머지 선수들이 어느정도 빨리성장하느냐 하는것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金仁奎기자】



◇도루왕 리키·헨더슨。방망이도 날카롭다。

빈 베이스만 보이면 훔치고 만다

색다른 盜壘王 헨더슨

아메리칸 올스타 外野手

88게임서 84번성공

스피드·大擔·공격력 갖춰 / 3割打率의 출루 뒷받침

미국프로야구 오클랜드 어슬레틱스팀의 외야수 리키·헨더슨(24)이 경이적인 도루기록을 세우고있다.

그의 도루는 과학적인 두뇌플레이와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도루왕으로 불려졌던 모리·윌스, 루·브록, 데비·로페즈등은 베이스·러닝을 과학화한 선수들이었으나 헨더슨은 앞에 빈 베이스만 있으면 투수가 누구건, 포수가 누구건 어떤상황에서도 훔치고마는 색다른 선수다.

헨더슨은 80년에 도루1백개로 아메리칸·리그기록을세운바 있지만 올시즌 66게임서 66번의도루를 기록할때까지만해도 별로 대수롭지않은 선수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텍사스레인저스와의경기서 70번째를 성공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헨더슨은 현재 총88게임서 84개의 도루를기록하고있다. 한국프로야구 전기리그의 도루기록인 趙興雲(삼미)의 29개(40게임)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게임당 1개꼴인 헨더슨의 기록은 놀라운 것이다.

지금 현역선수들중 최다도루 기록자는 로페즈. 75년 다저스시절 38개연속 도루를 올렸던 로페즈의 이번 시즌 도루율은 8할3푼1리이다.

하지만 그도 헨더슨에 대해서는 밀어지지 않는다는듯 고개를 흔든다.

『도루를 하려면 투수의 세밀한 움직임을 모두 읽어야한다. 무릎의 구부림, 머리·어깨의 움직임등…. 그러나 헨더슨은 이런기술보다는 단지 스피드와 대담성, 공격성으로 해내고있다』고놀란다.

헨더슨은 도루시도에서 모두 20번을 실패했는데 그중 10번은 투수의 견제에 걸려 협살당한 것이고 2개는 홈스틸 실패였다.

그의 도루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57번의 2루스틸서54회성공했으며 다른 선수들은 별로 시도치 못하는 3루스틸에서도 26번중 21번 성공했다. 더블스틸 작전으로 홈스틸도 1개를 추가, 모두 76개의 기록을 세운것이다.

헨더슨은 오클랜드의 브시로드·파크근처서 자랐으며 오클랜드 기술고등학교 재학시 3개종목 스포츠에서 스타의 재질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풋볼에 뛰어났다. 2학년때는 1천m 달리기에 전념했고 O·J·심프슨에 비유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해도 야구는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하나였으며 뒤늦게 야구팀에 들어가 7할1푼6리의 놀라운 타율을 올리면서 스카웃제의가 몰리기 시작했다.

결국 76년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 입단한 헨더슨은 『어느운동을 선택할까 망설일때 결단을 내려준 사람은 어머니』라고 말한다.

그의어머니는 헨더슨이 풋볼을하다 부상을 하면 선수생활이 쉽게끝나버릴것을 걱정, 선수로서 장수할수 있는 야구를 권했다.

그는 왼손으로 볼을 던졌으나 배트는 오른손으로 휘둘렀다.

또 번트를 대고 뛰어나가는 발재간을 과시하는가 하면 1백30m의 장쾌한 홈런을 때려내기도했다.

그가 도루왕이된비결은 어디에있을까.

첫째 어떤상황에서나 항상 공격적인야구를 가르치는 마틴감독의 덕이라고한다.

또 슬러거 드웨인·머피가 헨더슨 다음 타석에 버티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다.

머피가 왼손타자이기 때문에 헨더슨의도루시 포수가볼을 던지기 힘들뿐 아니라 홈런타자이기때문에 상대투수들은 주로 커브볼을 던지게 마련이다.

또 투수가 1루의 헨더슨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는 머피에 당하기가일쑤이므로 헨더슨에 도루찬스를 허용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illegible] 이 완벽하다. 그는 정확히 3보만 리드한다. 그리고 솜씨있던몸에 시동이 걸리면 팔과 다리를 피스톤처럼 휘젓는다.

하지만 도루찬스를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3할에 이르는 높은 타율과 출루율에있다.

헨더슨은 아메리칸리그의 올스타외야수로뽑혀 내셔널리그올스타와 경기를 벌였다. 【俞興根기자】

海外 스포츠

負傷선수 再起돕는 무드·룸

회전의자 앉으면 自動마사지

立體音響통해 고통·不安 덜게

이글스팀서試圖 성과 아직未知數

격렬한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프로선수들의 부상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는것은 스포츠 과학의 오래된 숙제다.

특히 아메리칸·풋볼, 야구, 아이스·하키, 축구, 농구등 대부분의 스포츠를 프로화하고있는 미국에서 프로선수를 통해 낳은돈을 벌겠다는 구단측에서는 이문제가 중요한 투자대상이기도 하다.

◇풋볼 구장에서 태클에 쓰러진 이글스팀선수. 이글스구단은 이런선수들을 컴퓨터가 운영해주는 무드·룸에 보내 치료하고 있다.

구단주 입장에서는 부상한 주요 포스트의 선수가 부상이 다나았는데도 부상으로 인한 충격때문에 돌진력을 잃는것은 더욱 큰 문제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위해 미국에 등장한것이 「무드(Mood)룸」. 프로미식축구 NFL소속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와같은 시의 야구팀인 필리스(80년 월드·시리즈우승팀)는2년째 무드·룸을 운영하고 있다.

이방에는 부상이 치료된 선수들이 보내진다. 방안은 카피트가 깔려있고 벽면은 입체음향판이 붙어있으며 회전이 가능한 가죽의자가 놓여있다. 선수는 의자에 앉아 버튼을누르면 이방에 장치된 컴퓨터에 의해 의자에 열기가 스며들고 선수의 몸을 마사지 해주며 각종 색등이 커지면서 벽면에 석양이 비친다. 그다음 잔잔한 음악이흐르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시오.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는 테이프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여행은 15~20분에 지나지않는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면 기분은 상쾌해지고 부상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무드·룸이란 결국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돌진력을 회복시켜주는 자동기계인 것이다. 이를 제일먼저 마련한 이글스팀은 부상회복만이 아니라 선수들의 고통, 불안을 없애주고 그들의 확신력을 증진시키기위해 긴장풀수있는 최면성이 짙은 각종 테이프를 마련해놓고있다.

이글스에 이어 두번째로 무드·룸을 만든 필리스팀은 정신안정[illegible] 커브볼을 정확히 칠수있는 방법을 담은 테이프등을 개발, 스코어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아직 무드·룸의효과에대해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이글스팀의 트레이너이며 무드·룸의 창시를 차린 오토·데이비스는 『이방의 사용이 우리 팀을 슈퍼·볼(美式蹴球결승전)로 이끌지는 못했다. 그러나 팀의 화합에는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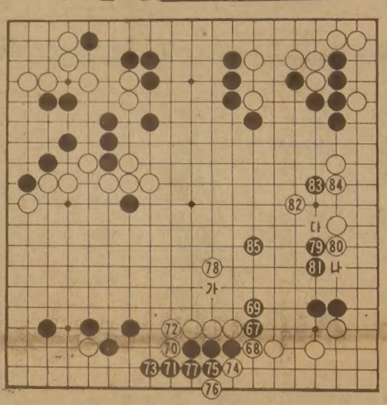
데이비스는 매일 저녁 7시부터 15분간 「화신」이란 테이프를 틀고있는데 이를 틀고나면 밤12시까지 밤잠을 잊고 일할수 있다. 【安泰煥기자】

제13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3局 第8譜 67~85 (각5시간·덤5집반)

黑(名 人)曺 薰 鉉〈2勝〉

白(挑戰者)徐 奉 洙〈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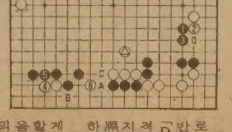


名人은 결국 하변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黑67로젖혀나와 69로 벌릴때는 곁에서 보는이가 그기백에 놀랄정도였다.

도전자는 눈썹하나꿈쩍하지않고 白70이하76까지 黑을 몰아댄다음 가볍게 白78로 뛰어나갔다. 상당히 기분좋은 표정.

그러나 70은 그냥 「가」자리에 뛰어나가야 좋지않았나는 국후중론이다. 즉 참고도의 △표면 黑은1、3으로 달아나는것이 상식이다. 이때 白4、6이 멋진맥점. 다음 白「A」와 「C」를 맞보아서 黑이 망한꼴이다.

黑, 여전히 困境



따라서 黑1로는 「C」에 반발하고 白은 「D」쪽에서 공격하게 될것같지만 이것역시 黑이 괴롭기만하다.

黑79는 이렇게 탈출을 모색할자리지만 다음 81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보통이면 이수는 黑「나」에 젖힐자리인데 그러면 白이「다」에 꼬부려 막아서 뒤가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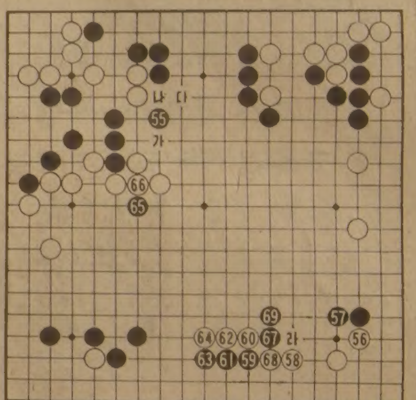
白82이하 黑85까지 필연의진행이라서 거의 노타임. 하지만 黑은 좌변이 미생인때문에 불리한형세다. 【一凡】

제13기 名人戰 挑战5番棋

第3局 第7譜 55~69 (각5시간·덤5집반)

白(挑戰者)徐 奉 洙〈2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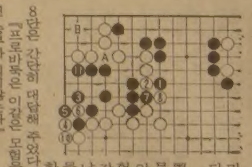
黑(名 人)曺 薰 鉉〈2勝〉



黑55의 탈출에는 名人도 비장한 각오가 필요했다. 좌상 黑의 안정을 꾀하자면 55는 그한줄아래인 「가」자리에 뛰어야한다. 그렇지만 白「나」에는 역시 黑55의 쌍립이 절대. 여기서 白「다」로 뚫고나가면 黑이 크게 당할꼴로 된다.

한편 白도 참고도처럼 黑1(55)에 대하여 白2로 직접 끊으면 黑3、5로 패를 하여 白6때 黑7로 패를 쓴다음 9로 따내면 白은 10으로 후퇴할수밖에없다. 그런다음 黑11이면 黑「A」에서 「B」의 치중수가 나타나 白도 섣불리 대들지 못한다. 이런 관계로 도전자는 55쪽의 切斷을 뒤로 미룬것이다.

下邊에 戰雲



하지만 黑55는 아무라도 보아 허한수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趙8단은 간단히 대답해 주었다. 『프로바둑은 이같은 모험을 피하면 승부가 되지않는다』

白56으로 우하귀에 전향한것은 현명하다기 보다 일종의 遠觀이었다. 이수로 白「라」는 黑59로 육박하는 호착을 허락하기 때문. 白58은 침착했다.

그러나 저러나 名人은 여기서 黑67、69로 승부를 재촉하여 풍운이 급해진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64〉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응달 ㊹

일환이는 매일 일찍 들어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나갔다. 오목이는 동굴속에 소꿉장난에 쉬 지쳐서 낮잠을자기도하고 거울을 떼서 벽에기대놓고 오래오래 화장을 했다 지우기도했다.

때로는 안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올라가 녹슨쇠문을 밀어보기도했다. 쇠문은 힘겹게 열어봤댔자 거기도 역시 지척을 분간할수없을만큼 어두운 창고였다. 그곳 눅눅한 어둠속엔 묵은 김치냄새 젓갈냄새등이 묻어날것처럼 농밀하게 녹아있어 사람을 밀어냈다.

그러나 심심한데지친 오목이는 곧 그것을 겁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항아리와 사과궤짝, 빈깡통, 빈병 사이를 헤집고 반대편 문을 열어보았다. 창고문밖은 비스듬한 동산처럼생긴 정원이었고 언제나 눈부신 빛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녀는 그빛이 벅차 때로는 가벼운 현기증조차일으켰다.

춘자가 세든 판자집이 있는 수락산 기슭만해도 가까이에 공터도 있고 수풀도 있어서 도심보다는 공기도 좋고 정취도 있었다. 그러나그곳의 자연은 아직도 모진겨울바람에 시달리고 있었건만 안집 정원엔 봄기운이 넘치고있었다. 안집만 아니라 그동네의 정원의 나무들은 이미 눈이 부풀대로 부풀어 가장귀의 선이 부드럽고 풍만했다. 그런 특징은 멀리서볼수록 완연해서 온동네가 특별히 봄의 은총을 먼저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동굴에서 솟아오른 그녀에게 이런 넘치는 빛과 봄의기운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자주 몸이 나른해서 자는낮잠에서 꾼 꿈과 구별을 할수 없을 적이 많았다.

사람들은 잘 때 어둠을 보건만 그녀는 깨어서 어둠을 보고, 잠 들면 빛과 색채에 충만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흐드러지게핀 많은 꽃들 본날이었다. 대낮에 어둠이 견딜수가 없어서 천장을 열고 계단을 올라 창고를지나 안집 정원을 훔쳐보다가 담에 늘어진 개나리의 눈이 샛노랗게 밥풀처럼 부푼 걸보는 순간 오목이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잠깐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다가 간신히 일어나 엉금엉금 기다시피 창고속을 지나면서 묵은 김치냄새가 싫어서 오장이 뒤틀리는것 같았다.

이렇게 뒤틀린 오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저녁상을 보러갈때까지도 뒤집힌 비위는 가라앉지 않았고 저녁장을 보다가 문득 희한한 처방이 떠올랐다. 불고기 한점만 먹으면 씻은듯이 나을것 같았다. 생전처음 내려보는 처방치곤 너무도 자신이 있었기때문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불고기거리를 샀다.

그간의 철저한 구두쇠살림으로 미루어 고기반찬 같은 건 거의 체념하다시피 한일환이가 눈이 휘둥그래지든 말든 오목이는 불고기를 혼자서 아귀아귀 포식했다. 무아지경의 식욕이었다.

잠자리에서 일환이가 싸늘하게 말했다. 『혹시 임신한거 아냐?』 오목이는 그의 벼르고 벼른 것 같은 싸늘함엔지, 임신이란 생급스러운 말엔지 기겁을 하게 놀랐지만 아니라고 말하진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잠 들지 못하고 뒤챘다. 도마에 오른 잉어처럼 괴롭고 힘차게 뒤채는걸 새벽녘까지 느낄수가 있었다. 그가 뒤챌 때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무엇을 괴로와하는지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선 안될 것 같았다. 견딜수 없이 그 까닭을 알고싶을수록 그걸 알게되는 날 결혼생활도 끝장이 날것같은 미신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표주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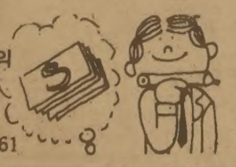
大路逆 뜨거운키스 即審에 두大學生 『表現자유』항변

○…서울東大門경찰서는 15일 큰길가에서 서로 껴안고 키스를한 鄭모군(21·S대자연대4년)과 安모양(20·P대영문과3년)등 2명의 대학생을 경범죄처벌법위반혐의로즉심에회부.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4일밤11시30분께 서울鍾路구 東崇동산2 버스정류장앞 큰길가에서 서로 부둥켜안고10분가량이나 키스를 하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것.

鄭군은 단속 경찰관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항의하다 즉심에 넘겨진것.

광고문의



533·2361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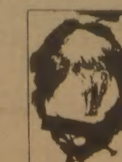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재극 해주는 최근의 신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종합보험

김 흥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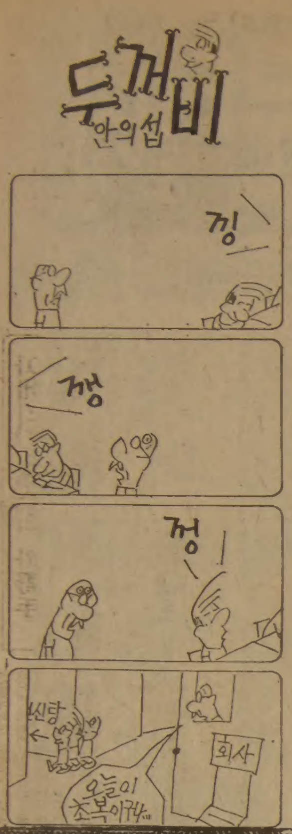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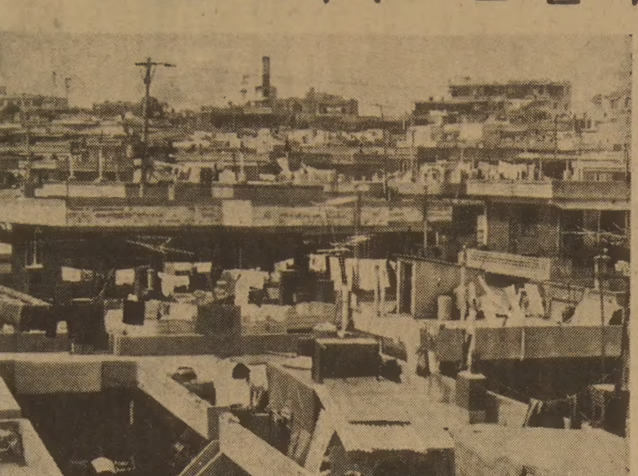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신종 私債놀이「삭월세 專門」

6·28조치후「돈벌이」새숫법

工團등지 洋屋몇채씩 잡아 金利2~3倍의 비싼貰받아

몇億씩투입…庶民"울며겨자먹기"골탕



◇九老공단주변의 전셋집들. 요즘 이곳에는 사채업자들이 몰려와 전셋방을 독점하고 근로청소년들을 상대로 비싼 삭월세를 받아내고있다.

대규모로 삭월세를 놓는 신종 사채놀이가등장, 서민들이 애를 먹고있다. 6·28경제조치로 금리가 대폭 내리고 사채양성화 방안이 나오자 일부사채업자들이 재빨리 대도시변두리지역으로 진출, 은행금리의 3~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삭월세놀이를 하기 시작한것. 1억원을들여 60개의 방을 얻어내 일수놀이하듯 삭월세를 받으러다니는 사람까지 목격되는 실정인데 이들때문에 공단주변 같은곳은 전세방이 동이나 돈이 많이드는 삭월세를 피해 셋방을얻으려는 서민들이 방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기고있고 그나마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할수없이 벅찬 삭월세방을 사용할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九老공단주변인 九老洞, 加里峰洞, 禿山洞일대.

이 일대에는 3~4평짜리 방이 10여개에서 최고40여개까지있는 2~3층 양옥집이 1천여호나 있는데 이같은집들이 모두최근들어 삭월세장사의 대상이 되고있다.

사채업자들은 한사람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을 투자, 전세집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같은 업자들이 줄잡아 1백50~2백명가량이 있으며 전세집이나오면 아무것이나 잡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는 것.

공단주변에 이들이 몰리는 이유는▲주택대부분이 수십개의 단칸방으로 이루어져있어 투자능력에따라 방의갯수를 정할수있고▲주민 대부분이 거액의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남녀근로자층이어서 사월세 수요가 많기때문.

사채업자들은 예금금리가 월0.67%(연8%)로 사채이자의 ⅙수준으로 떨어져 예금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예금주들이거나 실명거래에의한 사채양성화방안에 불안을 느껴 안전하고 합법적인 돈놀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장 인기가있는방은 3~4평짜리 전세방으로 전세금 1백~1백50만원을주고 빌린후 삭월세로줄때 보증금10만원에 월3만5천원씩을 받아내고있으며 2백만원 짜리는 보증금40~50만원에 월세 4만~5만원을받고 있다.

또 월세계약서에『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금으로 대신할수 있고, 2~3개월분 월세를 연체할 경우에는 퇴거한다』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안전이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다는것.

서울九老區加里峰2洞 S복덕방의 경우 이같은 업자들이 하루평균 10여명씩 찾아오고 있는데 이는 3차례의 금리인하조치가 있기전인 지난해 말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

金모씨(41·여·冠岳區奉天洞)의경우 1억원을들여 60개의 전세방을얻어 삭월세를 받고있는데 일수놀이하듯 장부를갖고 삭월세를 받으러 다니는게 일과라는것.

이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결국 실수요자들인데 공원 朴英淑양(21)은『월세로 살아야하는 공장근로자등 저소득층들을 상대로 비싼 사채이자를 받아야하느냐』며 당국이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줄것을 요구했다.

九老공단에 취직돼 충남論山에서 상경한 崔吉熙씨(28)는『고향에서 1백50만원을마련해와 1주일동안 돌아다녀도 전세방이 동이나 구할수 없었다』며『그렇다고 10여만원남짓한 월급의 절반을사월세로 주면 생활은어떻게하느냐』고 말했다.

한편 九老區 禿山4洞 Y복덕방 주인 金모씨(38)는『이같은 수법은 결국합법을 가장한 실질적인 탈세』라며『앞으로 대출이자가 낮은점을 이용,은행에서 대출을받아 이곳에투자하는 새로운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金宗來기자】

司試합격생 軍서 收容못해 고민

대폭增員 부작용 일부 一般兵불가피

지난해부터 사법시험합격자를 대폭늘려 뽑게됨에따라 사법연수와 수료생의 군복무문제를놓고 관계부처가 진통하고있다.

지금까지는 사법연수원 수료생가운데 군복무를 끝해야할사람은 희망에따라 모두법무장교로 임관돼왔는데 군법무관정원에는 한계가있어 갑자기늘어난 사법연수원 수료생전부를 받아들일수 없게됐기때문이다.

15일 사법연수원에 의하면 오는9월 수료하는 12기생은 모두 1백49명이며 이가운데 병역미필자가 72명이다.

그러나 올해국방부가 확보한 법무관정원은 34명에 불과해 나머지38명은 사병으로 입대하거나 일년을쉬고있다가 내년도에 차례를 다시기다려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내년9월의 수료예정자13기생 2백71명 가운데 병역미필자는 1백22명이고 내년도 법무관정원도 55명에 불과해 문제는 해가갈수록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최근올해에 법무관으로 임관하지못하는 38명이 내년도로 넘겨지거나 사병으로 입대하는것을 피하기위해 헌병이나 정훈병과등의 일반행정 장교로라도 임관될수 있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고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장교로 병역을 마칠경우 법조인으로서의 복무기간에 차이가생기며 (법무장교는 훈련기간합해 3년 행정장교는 훈련기간 [illegible] 고3년) 법관이나 검사로임관된뒤에도 호봉이나 경력에 차이가 생겨 승진에도 영향이있어 이것도 권고하기가어려운 현실.

현 대법원규칙은 법률사무에 종사한 법무장교출신에게만 복무기간을 호봉과 경력에 산입해주고 있는것이다.

또 규칙을 개정, 일반행정장교출신도 복무기간을 호봉과 경력에 산입해 주는 길을 열어준다 해도 법무장교출신과 일반행정장교출신간의 실무상 능력의 차이가 생겨나는것도 쟁점이 된다는게 사법부의 우려다.

이때문에 올해 법무장교로 임관이 못되면 일반행정장교로 갈수있는길이 마련된다해도 수료후 1년간 변호사개업을 했다가 내년에 법무장교로 군복무를마치겠다는 연수원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것.

현재 국방부는 법무장교선발원칙을 장기복무 희망자에 우선을두고 다음엔 사법연수원성적순으로 뽑고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률전문가 양산을통한 국민법생활화를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대폭늘린것은 이해가가나 군복무문제등 사회적수용 태세가 미비할것을 우려하면서 법무관정원은 일정한데 앞으로 수료생이 계속 누적될경우 군복무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경미한事故 이유로 운전사 解雇못한다"

釜山地法

진성여객에 "봉급支給"판결

【釜山】부산지법 민사7부 (柳台鉉 부장판사)는 15일『경미한 인사사고 2회와 접촉사고 2회등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운전사를 해고할수는 없다』고 판시 金인태씨(38·부산 海雲臺區盤松1洞 809의2)가 시내버스 진성여객 대표 洪인섭씨를 상대로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회의 인사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큰것이었으며 접촉사고도 피해20만원이하의 경미한 사고이었는데도 당해운전사를 해고한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다』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이해고는 무효이며 81년11월10일해고이후 현재까지 매월30만7천5백원씩의 봉급을 소급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金씨는 이 노동조합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일하면서 근무조건과 환경개선을촉구하는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해고한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번해고는 1년이내에 3회이상 인명사상사고를 내면 해고처분해도 된다는 교통부령 사업용 자동차 종업원관리규칙을 잘못적용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 소장을 냈다. 【鉛】

公務員 4명 不拘束 입건

大田시청賂物사건

【大田】속보=忠南도경은15일 山城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조합장 李承圭씨(62)로부터 30만~1백30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키로됐던 大田시청 구획정리과장 李輔桓씨(46) 동계지계장 安承角씨(40), 전 환지계직원 金相謙씨(48), 토지개발공사 大田지사 도시계지원 趙炳學씨(49)등 4명을 대통령사면령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大田시청직원들을 입건조치한것은 '지난80년말까지의 공무원비위는 불문에 붙이되 단 금품수수액이 80년6월30일 이전에 한한다」는 대통령사면령(81년1월31일 공포)과 공무원윤리헌장(80년12월29일 선포)에 따른 것이다.

고속 버스에 치어 길건너던 母女死傷

【光州】14일낮 12시20분께 전남光州市北區東雲洞 운암아파트앞 커브길에서 4개월된 딸을 안고 길을 건너던 千順玉씨(24·여·전남光州市北區東雲洞495)가 光州고속소속 전남5아3869호(운전사 趙官玉·37) 고속버스에 치여 딸 정창현양은 현장에서 숨지고 千씨는 중상을 입고 시내西區月山洞 동아의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鉛】

"직접證據없어 殺人무혐의"

釜山地檢 女經理피살사건 절도죄로만起訴

【釜山】부산지검 黃善泰검사는 15일 부산東萊區東上洞 대나무밭 여경리사원 알몸피살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서 검거, 살인및 절도혐의로 구속송치된 趙明奎피고인(22·중국집주방장)에 대해 살인부분은 무혐의결정하고 절도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趙씨가

▲경찰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한후 검찰에서는 부인하고 있고

▲살인현장에서 발견된 머리빗1개가 趙씨의 것이라는 확증이 없으며

▲살인에 사용하기위해 대나무를꺾고 피살자의 중요부분털을 깎았다는 결정적인증거물인 연필깎기칼을 찾지못한점

▲피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O형의 혈액은 피살자와 趙씨의 피가 모두 O형이라 범인의것으로 확증지을수 없는 점등을 들어 범인이라는 심증은 짙지만 직접적인증거가없어 살인혐의부분은 무혐의로 결정 한다고 밝혔다.

醫療保險料 강제징수

전북沃溝서 처음 滯納者 TV등 財産압류

의료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첫번째 강제징수가시작됐다.

전북沃溝郡 2종 의료보험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중 6개월~1년간 보험료를 내지않은 20가구의 TV등 재산을 압류, 강제징수절차에 착수했다.

沃溝郡의료보험조합은 지난 1년간 보험료징수실적이 53%정도에 그쳐 2종보험1차시범실시 3개지역중 보험료징수실적이 가장저조한 형편인데 沃溝郡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 규정에따라압류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보사부의 한관계 당국자는 『이번 강제징수는 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체납한주민들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것이며 체납자들이 1~2만원정도의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압류절차는 취소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7월1일부터 2종보험이실시된 木浦市등 3개 2차시범사업지구는 오는 8월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관계법에따르면 조합측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한후 10일이경과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으로도 재산을 압류할수있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하루1백원에 대해 10전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車훔쳐 도둑질 상습2명 令狀

【釜山】부산南部경찰서는15일 孫秉祐씨(24·부산南區龍湖1洞141)成哲씨(24·여)등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裵成泰씨(23·부산南區龍湖1洞95) 金모군(18·부산南區龍湖1洞)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운전사인 孫씨등은 지난 1월초 차량절도단을 조직한후 지난 5월2일 밤10시께 부산釜山鎭區 楊亭4洞 91 南영우씨(34)집앞에 세워둔 南씨소유 부산1다5382호 승용차를 훔친것을 비롯, 길거리에 세워둔 승용차 9대와 영업택시 5대, 오토바이 2대등 모두 16대의 차를 훔쳐타고 다니며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거나 밤길을 지나는 부녀자들의 핸드백을날치기해왔다는 것.

이들이 16대의 훔친차를이용해 훔친물품은 30여회에걸쳐 컬러 TV 21대 전자제품 옷가지 귀금속등 3천여만원상당으로 집계됐다. 【鉛】

오늘「시원한初伏」

장마前線소강…이따금 소나기

오늘(16일)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初伏)。

우리나라는 장마전선이 소강상태에 빠져 지역적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고 기온은 예년보다 낮아질것같다.

중앙기상대는 15일 북서쪽에서 접근한는 저기압골의영향으로 16일밤 남부 일부지방에 약간의비가 내리고 16일부터는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으나 많은비는 오지 않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초복인 16일의기온은 남북으로 형성된 기압골과 북위 30도선에 걸쳐있는 약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2~3도가량 낮아 서울·중부가 최고 27~28도, 남부 25~27도의 분포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制憲節연휴 맞아 특급列車 증설

철도청은 제헌절 연휴기간에 휴가여객이 대폭늘어날것으로 예상, 이를원활히 수송하기 위해 湖南, 中央, 嶺東선에 기존임시열차외에 8편의 특급열차를 증설, 16일부터 18일까지 운행키로했다.

이에 따라 서울-木浦간은 16일에 한해 2편의임시열차를 증설운행하고 淸凉里-江陵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 6편의 임시열차를 운행한다.

임시열차 출발시간은 서울과 江陵에서 하오9시40분과 11시에, 서울·木浦에서는 하오8시30분과 8시55분이다.

한국일보

533·2361

"權力層통해 工事代金받게 해준다"

下請업자 돈뜯은 40代구속

【釜山】부산 西部 경찰서는 15일 대한화재보험 釜山鎭영업소장 李충룡씨(42·부산西區 棣亭4洞 583의 24)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李씨는 지난해 11월23일 남양로전 대표 朴명수씨가 모 빌딩을 시공중 공정90%에서 부도를내고 달아난것을 알고 朴씨로부터 빌딩공사를하청받아 시공을 하고도 수천만원의 공사금을 받지못한 朱정민씨(35·부산 西區 芙蓉洞1街68)에게 잘아는 권력층인사를 통해 밀린 준공검사와함께 공사대금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3백만원을 요구, 현금 1백50만원과 1백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받고있다. 【鉛】

실뱀장어 輸出중단

가격 크게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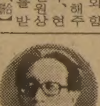
【天安】충남牙山郡관내 양만(養鰻)업자들은 수출가하락으로 실뱀장어수출을 중단하고있다.

14일 관련업계에 의하면 관내 6개양만업자들은 올해 실뱀장어 2만3천5백kg(1백88만달러상당)을 수출할 계획을 세웠으나 臺灣에 수출하던 실뱀장어가격이 올봄까지만해도 kg당 1백달러였는데 최근들어 70달러로 크게 떨어지자 수출을 외면하고있다는것.

이로인해 이들 6개 양만업자중 삼성양만장(대표 韓재호)만 실뱀장어 5백68kg(4만5천달러)을수출했다.

牙山郡 新昌面 水長里소재 양만업자 南基鍾씨(43)는『kg당 수출가격이 1백달러이상이어야 사료값·인건비·전기료등을 감안, 타산이 맞는다』고 지적, 현재 수출단가 70달러(kg당)로는 적자를 면치못해 수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鉛】

高大독문과 朴鍾緒교수



高麗大 독문과 朴鍾緒교수 (61·사진·서울江南區瑞草洞279의5)가 14일하오10시10분께 서울江南區道谷洞193앞 남부순환도로에서 극동쉘주식회사 영업부장 權五鉉씨(43)가 운전, 良才洞쪽으로 달리던 서울4라3374호 포니 승용차에 치여 江南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만에 숨졌다.

한국독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朴교수는 지난 30여년간 高大에 재직하면서『변신』『우화부인』등 많은 독일문학번역서를 내놓았는데 유족으로는 安福環여사(61)와 1남2녀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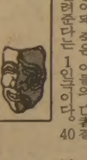
긍지의 藝術家

재일동포3世 연극배우 李禮仙씨

한국이름지키며 日연극계 頂上에

재일교포3세 연극배우 李禮仙씨(40·사진)는 지금일본도오쿄의연극무대에서『아이고!』『아이고!』하는 한국식 곡소리를 시원하게 터트리고있다. 그녀는 지난7일부터 일본도오쿄미쯔코시문화센터로열극장에서 열리고 있는 어머니를 주제로한 韓·英·日 모노드라마시리즈에서 恨많은 어머니로 출연, 재일교포의『멍든가슴을 달래주고있는것이다.

그녀가 출연하고 있는 모노드라머는 吳泰錫作 스즈끼연출의『에미』。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서잃은후 무당이돼 죽은 아들의亡靈결혼식을 올려준다는 1인극이다. 40년간 일본에 살면서 맺힌恨을모두 곡소리로 뿜아내면서 새삼스럽게 한국여인의 질펀한 恨을 실감케했다는 작품.



李禮仙씨는 한국엔 잘알려져 있지않은 연극배우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어 이름인「李禮仙」을고집스럽게 지켜온「긍지의 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는 한국이름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극배우가 되는 것도 일본사람의 사람을 받기가 힘들다고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녀는「한국인의 긍지」를 지키는 만큼 일본사람에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런뜻에서 결혼도일본인극작가이자연출가인가라주우로씨(唐十郞)와 했다. 물론 아버지의 실망은 컸지만 이를계기로 한국인으로서의「아픔」과 일본인에대한「미움」에서 벗어날수 있었다고 돌이킨다.

『저는「李禮仙」이라는 한국이름을 지키기 위해 나자신과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읍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어안아야 하는 연극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핸디캡이 여간 많은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끝내 훌륭한 배우가됐다. 지난75년『뒷골목·호프만이야기』로 일본최고의 연극상인 기노구니야賞의 여자연기상을 받았을때는일본인에 대한 편견을 버린 恨많은투쟁에대한 승리감을 맛보기도했다.

그녀는 도오쿄공연을 마치면8월6일까지 일본10개도시 순회공연에 나선다.『恨』의 순회공연이다. 그녀가 무대에서 恨이 쌓여 울부짖는「아이고」소리에 얼마나 많은교포들이 가슴에쌓인恨을풀려는지…。
【崔成子기자】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APT............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매스터카드............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특히 해산물 전문.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591 Gerrard St. E.(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B2,B3 (아래층 지하실)
☎ : 465-8272

키다리 美國、우승 문턱에

국제친선농구 自由中國 떡주무르듯…117-49 大破

中國、10點臺돌파 15分걸려 美의 용수철슛에 觀衆박수

美國과 自由中國의 대결은 장신의 일방적승리였다。15일 장충체육관서 진행된 82서울국제초청 남자농구대회 7일째 결승리그4일째경기에서 2m를넘는 선수가 5명이나 되는 美國은 自由中國을 1백17-49로 대파하고 3승을 기록、우승문턱에 바짝다가섰다。

한국、오스트리아에 逆轉勝 2勝1敗

美國은 12명의선수를 전원 기용하면서 월등한 개인기를 살려 단신의 自由中國을 어린아이 다루듯 했다。

한편 전날 벌어진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대전서 한국은 전반 오스트리아의 맨투맨수비에 고전했으나 후반에접어들어 프레싱으로 장신공격을 저지하고 李忠熙·朴仁圭의중거리슛에 힘입어 1백8-89로 역전승、2승1패를 기록했다。

美國과 自由中國의 대전은 예상대로 美國의 일방적인게임이었다。애플게이트(2m06) 마이클·브리트(2m04) 포니·코스트너(2m10) 마이크·레디크(2m06) 스티 파노비치(2m13)등 2m가 넘는 선수가 5명이나 있는 美國은 상대진영을 마구 드나들었다。평균 신장에서 美國(1m98)에 8cm밖에 뒤지지않은 自由中國은 1m93의 선수가 숭췐순등 5명으로 신장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정自由中國은 40-11로 10대를 넘어서는데 15분이나걸렸다。美國은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는 탄력으로 상대를압도、거인의 힘을 발휘했다。또한 개인기와 스피드에서도 단신선수들을 압도、전반을 56-17로 크게 앞섰다。

후반은 승부보다 美國이얼마만큼의 점차로 이기느냐는 것이 관심의 초점。맥빠진경기였지만 관중들은 미국선수들의 개인기에 찬사를 보냈다。

◇제7일결승리그 4일

미 국	117	61-32 / 56-17	49	자유중국
(3승)				(2승1패)

◇갈채받은 덩크슛 美國과 自由中國의 대전。키 2m가 넘는 美國의 장신 마이클·브리트가 몸을 틀며 점프 슛을 시도하고있다。

申東坡감독 辭意철회 권유
농구協서、代表팀 계속맡도록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이사회를열고 사의를표명한 申東坡여자대표팀 감독을 종용、계속 팀을 맡도록 권유키로 했다。

따라서 여자대표팀은 申東坡감독과 趙勝延코치가 계속맡게되었는데 申감독이 사퇴의사를 고집할경우 새대책을강구키로했다。

이날 이사회는 사의파동을 몰고온 成貞兒(17·三千浦女綜1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대표로 출전시킨후 대표팀코칭스태프의요청이있으면그때가서 대표선수로 기용키로했다。이사회는 金福順(코오롱)을 馬恩京(코오롱)으로 교체했다。

아시안 게임 파견 水泳대표 12명선발

대한 수영연맹은 오는11월 아시안·게임파견 대표선수단을 확정、체육회에 추천했다。

◇대표선수단 ▲코치=劉雲謙(경영) 趙彰濟(다이빙) ▲남자선수=李熹喆 千仁泰 李忠原 趙와熙 朴相千 ▲여자선수=崔允庭 권우정 崔允喜 李始恩 金吟希▲다이빙 선수=朴鍾龍 李永俊

LA서는 7千관중 熱狂
在美동포 慰問공연끝내

李朱一·趙容弼·혜은이·河春花로 구성된 재미동포위문공연이 6월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막이올라 지난12일 호놀룰루를 끝으로 10개도시의 공연을 마쳤다。로스엔젤레스슈라인 오디토리움극장에서 열린 공연(사진)에는 7천여명의 재미동포가 운집、열광했으며 채 입장하지못한 3천여명은 섭섭한 표정으로 발길을돌렸다고한다。

한국、長身캐나다 꺾다

국제친선배구 시작부터 불꽃튀는 熱戰 3·2辛勝

美는 印度를 셧아웃

한국은 15일 문화체육관서 속행된 국제친선남자배구대회 3차전서 장신의 캐나다에 3-2로 신승했다。美國은 印度를 3-0으로 물리쳤다。

한국은 이날 李範仟·張允昌·金炯泰·文湧冠·金京實·金相保를、캐나다는 호그·덴이러·바렌·존스·롤터·섹스톤을 각각 베스트로 기용、초반부터 불꽃튀는 접전을벌였다。

한국은 첫세트를 3점차로 따내고 제2세트서 13-9로 앞섰으나 캐나다의 장신블로킹벽에 막혀 14-14、15-15 타이를 허용했다。

한국은 張允昌과 金相保등이 공격실책을 범해 제2세트를 15-17로 빼앗겼다。

한국은 제3세트에서는 8-6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잇단공격실책등으로 2점차로 패했다。

제4세트는 한국의 승리。제3세트 9-12로 뒤질때 金炯泰대신 교체해들어온 李元宰가 제4세트초반부터 맹활약하고 文湧冠·張允昌의블로킹이 위력을 발휘해 3점만 내주어 세트스코어2-2 타이를 이루고 풀세트접전에 들어갔다。

한국은 마지막세트서 콤비네이션을 되찾아 초반부터 리드、11-3、14-5로 앞섰다。

◇제3차전적

미 국	3	15-12 15-4 15-4	0	인 도
한 국	3	15-7 15-3 13-15 15-17 15-12	2	캐나다

◇趙容時회장

"力道경기장 꼭건설"

趙회장 첫會見 팀增設등지원 中興다짐

대한역도연맹 趙容時회장은 15일 역도인들의 숙원사업인 실내경기장및 훈련장설립을 재임기간 중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趙회장은 이날 취임후 첫 기자회견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중·고교 역도팀 창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유망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역도중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기술지도를 위해 순회코치제를 실시하고 대학및 실업팀 증설과 중·고 선수들의 취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趙회장은 지도자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개최、해외우수지도자 초청、역도 강국의 훈련지도 책자등 자료수집에 주력、역도발전의 촉진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는11월 아시안·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대비、우선 국내에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2진 국가상비군을 창설、印度 아시안·게임서는 10체급 전체급서 메달을 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群山商등 4팀참가
잠실球場 開場기념 우수高야구 오늘부터 이틀간

잠실야구장 개장기념 우수고교 초청야구대회가 群山商高、金山高、天安北一高、慶北高등 4強대전으로 16·17일 이틀동안 열린다。

잠실야구장은 오는9월 제27회세계아마야구선수권대회에 대비、총공사비 1백26억원을들여 지난6월말 완공됐다。수용능력은 5만명。

기념대회는 16일 하오3시 입장식에이어 4시 群山商高-慶北高、天安北一高-金山高전으로、17일 하오4시 3·4위전、결승전순으로 진행된다。

이대회에 참가하는 群山商高는 에이스 趙啓顯의 投·打에 걸친 수훈으로 지난해 청룡기대회를 제패했다。

慶北女商 결승에 仁荷師大 附高도 中高배구

【釜山】慶北女商은 15일 九德체육관서 속행된 제17회 전국우수중고 배구대회 4일째 여고부리그에서 堤川女商을45분만에 3-0으로 물리치고 3승을기록、지난해우승팀 南星女商과 16일패권을겨루게됐다。여중부 준결승전에서는 馬山第一과 釜山德明이 각각이겨 결승전에 올랐다。

◇제4일전적

▲여고리그

경북여상 (3승)	3-0	충북제천 (1승2패)
부산남성 (3승)	기 권	대구여고 (4패)

▲여중부준결승

부산여명	2-0	부산은하
마산제일	2-1	서울성암

▲남고준결승

인하부고	3-1	경 복

▲남중부리그

부산동아 (3승)	2-0	충주미덕 (1승3패)
진주동명 (3승)	2-0	부산동래 (3패)

東洋 L·헤비級 첫 타이틀戰
25일 서울서 "황소"李洙恒 KO주먹 스즈끼와 한판

◇李洙恒

◇스즈끼

◇朴鍾八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라이트헤비급 첫타이틀전이 오는25일 문화체육관서 열린다。동급1위 日本의 스즈끼(28·鈴木利明)와 2위 李洙恒(23)은 12라운드 경기를 벌이며 승자가 OPBF 라이트헤비급 초대챔피언에 오르게 된다。

동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체급인 라이트헤비급(72.57~79.45kg)은 지난해9월 서울서 열린 OPBF 총회서 신설、지난 2월 스즈끼가 1위、李가 2위로 각각 랭크됐다。

스즈끼는 지난 77년10월 당시 OPBF 미들급챔피언 柳濟斗에게 도전했다가 판정패했으나 중량급 강타자로 알려져있다。

이후 체중이 늘어 미들급서는 더이상 뛰지 못하고 한때 라이트헤비와 헤비급사이의 크루저급 선수로 활약했으며 지금까지 13전10승(10KO) 3패를기록하고있다。

李洙恒은 77년 프로복서로 데뷔、79년11월 신인왕에 오르기도 했으나 체중이 불어나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전적은 4승(3KO) 1무1패。

朴鍾八「世界문」다시노크…8월 美서 시즈와再起戰

◆…미들급 朴鍾八이 세계무대진출가능성을 다시한번 테스트한다。朴은 오는 8월16일 낮(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가스의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미국 미들급의 신진 유망주 보비·시즈(20)와 10회전 경기를 갖는다。

이 경기서 朴이 승리하면 애렴 프로모터의 지원을 받아 미들급 세계도전의 길을 개척하게 될것이라고 金賢治매니저가 밝혔다。

지난해 11월 오벨메이아스(베네수엘라)에게 충격적인 8회 KO패를 당했던 朴은 현재 25승(24KO) 1무2패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으며、8월5일께 출국할 예정。대전료는 1만5천달러로 알려졌다。

뉴저지 출신의 보비·시즈는 미국 NBC·TV가 「베이비·탱크」로 선전하고 있는 신예 강타자로 오른손 훅이 강하다는것。

OPBF 미들급 챔피언인 朴은 18일하오 문화체육관서 印尼선수와 14차 방어전을 벌인다。

金成南、도까시기에挑戰「金煥珍 恨」풀려는지

◆…金成南이 오는 10월초 日本에서 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도까시끼(渡嘉敷勝男)와 타이틀전을 벌인다고 日本 프로모터가 14일 밝혔다。

日本 교에이(協榮) 프로모션은 도까시끼의 3차방어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히고 대전일자는 추후 결정될것이라고 전했다。

도까시끼는 지난해 12월 金煥珍으로부터 WBA타이틀을 뺏은후 멕시코의 루페·마데라와 日本의 이나미를 물리쳐 1·2차 방어전에 성공했었다。

金成南은 현재 22전19승(11KO) 3패로 WBA동급1위를 기록하고있다。

金은 이번 세계도전에 대비、매일 새벽 11km의 로드웍과 스피드훈련을 하고있다。

前매니저 홈즈걸어 1백50億원 損賠訴 세계가 깜짝

◆…WBC 헤비급 챔피언 래리·홈즈의 前매니저겸 트레이너인 리처드·지아체티씨가 계약불이행으로 홈즈와프로모터인 돈킹씨를 걸어 2천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주목을 끌고있다。

지아체티씨에 의하면 홈즈는 대전료의 20%를 자신에게 주기로 계약을 했으나 전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것。

8년동안 홈즈와 함께일해온 지아체티씨는 81년4월 결별했다。【金仁煥기자】

"下位"씻어버린 韓一銀
韓化꺾고 8強에 도약
백호기 야구

실업리그 최하위의 韓一銀行이 9회말에맞은 1死만루찬스를 5번金亨鍾의 결승타점 희생플라이로 살려 국가대표트리오 金在博·沈載元·李海昌이 활약하는 韓國化粧品을 5-4로 격파하고 제32회백호기쟁탈전국야구대회 8강에 도약했다。

15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2회전경기서 韓一銀은 허약한 韓化마운드를 공략、9회말 1死후 2번 朴海成、3번 鄭國煥의 연속안타와 후속 포볼로 만루찬스를 만들고 5번 金亨鍾이 세번째 마운드에 오른 金在博으로부터 센터 희생플라이로결승타점을 빼앗았다。

프로에 주력선수들을 넘겨주고 전력 열세에 허덕이는 실업팀들은 1、2회전 대진에서 한데몰려 실업세를 대표할 經理團이 韓化에、韓化는 韓一銀에 차례로 패퇴했다。

▣韓一銀 2번 朴海成은 1회말 1死후 선제 솔로호머를 날렸으며 9회말 1死후 우전안타로나가 金亨鍾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기록했다。

3회말에는 5번 金亨鍾이 중월3루타로、8번洪在鎬이 우월2루타로 각각 타점을 올렸다。

스타金在博은 뜻밖에도 韓化선발투수로 등장、실업야구의 심각한 투수난을 보여주었다。

金은 선두타자로 3타수2안타3득점을 올려 投·打에서 분투했으나 팀을 구하지 못했다。

◇제4일 2회전

동아대	413	000	080	16
서울대	000	100	100	2
한국화장품	011	010	100	4
한일은행	112	000	001	5

▲홈런=朴海成(1회·한일)

◇제3일1회전

동국대	020	120	600	11
건국대	000	000	022	4

韓國등9개국參加 印尼 테니스大會

【세마랑(인도네시아)14일 안타라=聯合】오는 22일부터 8일동안 인도네시아의 세마랑에서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컵쟁탈 테니스대회에 한국을비롯한 아시아지역 9개국이 참가한다고 인도네시아전국스포츠위원회가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臺灣、말레이지아、싱가포르、필리핀、버마등 아시아지역 9개국이 참가한다。

情事장면미끼 협박
★말레이지아盛行、당국조사

말레이지아경찰은 말레이지아에 잠입한 외국인콜걸들이 부유한 국내실업인들을 상대로 성희를벌이면서 그장면을 비밀히 녹화、이를 미끼로 공갈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다고。

말레이·메일지의 보도에 따르면 콜걸들이 낀 일단의 외국인들이 말레이지아의 부유한 실업인들을 유혹、『광란의 파티』에 참석케하고 그장면을 비밀히 비디오·테이프에 담아 돈을 뜯어냈을뿐아니라 외국인콜걸들의 말레이지아 체류를 연장시키는데 이용해 왔다는것。【쿠알라룸푸르=AP】

解說등은 거의없어 BBC 스포츠中繼

○…TV의 스포츠중계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스포츠중계의 묘미를 살려내기 위한 중계기술도 매우 발전돼있다。그러나 英國과 美國의 중계방식은 서로 다르다。

英國 BBC는 스코어、계숫자등을 표시하는 입체그래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가장 감동적인 그림을 이 그래픽으로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반면 美國의 경우는 그래픽을 최대한 이용한다。『술집 뒷좌석에 앉아서 해설을 들을 수 없는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이다。스포츠해설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海外연예

○…「키·라르고」(48년)로 오스카상과「도드워스」(56년)로 에미상을 받은바있는 73세의 여우 클레어·트레보가 다시 영화계에 컴백했다。

코미디물「키스미·굿바이」에 샐리·필드、제임즈·칸과 공연、10년만에 스크린에 다시 등장하는 것。

이 영화는 20세기폭스社가 제작중인데 트레보는『내4월이면 제가 처음 폭스사와 계약을 맺은지 꼭 50년이 된답니다』며 사뭇 감회가 깊은 표정。앞으로 5년간 전속계약을 했는데『5년이면 결국 종신계약을 한셈』이라며 즐거워했다。

3년전 샌디에이고 비행사고로 아들을잃고 곧이어 남편마저 뇌일혈에 죽어버리자 살고있던 뉴포트를 떠나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이에 비해 아직은 정정한 그녀는『옛날친구들도 다시 만나게되고 일도 하게되니 즐겁기 그지없다』고 컴백 소감을 피력。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챗쵸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SAT(토)
9 a.m.~5 p.m (오전9시~오후5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투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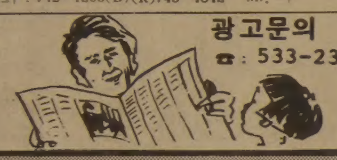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수 신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illegible] [illegible]land St. [illegibl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illegible]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
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
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
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빙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일보 안내광고＊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가게를 맡아 운영해주실분 찾음.
보증금 요(스탁), 주매상: $8,000 이상
연락처: 491-9701, (오후 6시이후 292-8838 Mr. 신)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함(여자분)
좋은가격과 일하시기 좋은장소 보장함.
전화 : 466-1461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Full Time Cashier 구함. (Day Time)
(Kipling & Bloor 근처)
전화 : 231-7944 (Mr. Hong)

세탁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무경험도 환영)
(Jane & Lawrence 지역) 오후 2시이후 연락바람.
전화 : 249-9331 (After 2:00p.m.)

경험많은 주말 가게 Helper 구함.
전화 : 278-8101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1220 Davenport Rd.
전화 : 656-3020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하숙원함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 +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Tuck Shop for Sale.(St.Clair & Yonge)
주변환경이 좋은 거주지역내에 있는 큰 건물안에 위치한 가게. 리스: 7년, 주매상: $3,700
Stegy Real Estate
759-4761
Mr. Vasos Alexandrou.

보석상 (Bloor & Bathurst)
가게와 장비 포함. (월요일은 쉼)
10:00 a.m~6:00 p.m 전화 : 532-1525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Variety & Grocery Store 급매
전화 : 694-7848

78년도 CHEV. PICK-UP 트럭 급매
가격 : $3,800
전화 : 665-8233 (아침 10시~저녁 6시)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7,000~$8,000, 리스 : 3년반 + 5년 option
로타리오 머신 있음. 아스킹 : $80,000
115 Montezuma Trail, (Brimly & Finch)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1. Coffee & Snack Shop
주 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내.
주매상: $5,000 Rent: $830 리스: 1990년
2. Albion Rd. & Hwy 27 공장지대
한국요리를 겸할수 있는 Chinese Restaurant
주류일절 판매. Rent: $1,000 리스: 1986년 + 5년 option
3. 시간짧은 Drive in Hambu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년 + 5년 option
A. E. LePage Real Estate
Mrs. Woo 전화 : 741-9170

일본식·한국식 음식점 매매.
Vancouver 부근(B.C) 좋은 장소임.
$80,000 현금 필요.
요리방식 지도해 드림.
Lakeviw Realty
Mr. Jack Im.
(R) (604)-591-5897
(B) (604)-588-9955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Air Condition 급매. (Fedders)
용량: 36,000 B.T.U. Used One. 가격: $2,800
2 unit. 연락처: 277-8985, 656-6753(Ross)

성업중인 Variety Store 건물과 함께 매매.
주매상 : $3,600, 아스킹 : $85,900
전화 : 923-1206, Mrs. Lee (다운타운 지역)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급매.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3,300~$3,500. 리스 : 9년. 렌트 : $350.
이층 살림집 렌트 가능. 전화 : 757-64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3,300
전화 : 699-4804

성업중인 햄버거·레스토랑 급매
렌트 : 2년($385). +3년
아스킹 : $24,500 전화 : 251-1908 Mr. 리

(1)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 $500/M.
리스: 5+5. 아스킹 : $38,000+스탁.
(2)Hunts Bakery in Mall(open)
주매상 : $9,000. 6days Short Hour. 아스킹 : $220,000
다운페이 : $150,000. Best Bakery in Canada
(3)Coffee Shop in Building.
주매상 : $6,000. 5days Short Hours. 아스킹 : $210,000
다운페이 : $100,000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Hamburger Shop
30여대 자동차 파킹 가능한 건물임. 건물은 McDonald 이나 Harvey와 같이 단독 건물임.
Asking : $150,000(건물포함)

(2)Variety Store in Mall
주매상 : $5,500+Lotterio+Post Office.
Lease : 5년+5년 Option. Rent : $1,800(관리비, Tax포함)
영업시간 : 월~토(9:00 a.m~9:00 p.m) 일요일은 쉼.
Asking : $100,000+스탁

(3)Variety Store with Gas Bar & Post Office
건물 2층에 2Bed Rm. 3Bed Rm Apt가 있으며, 단독주택도 있음. 그곳에서 월세가 $760 수입됨. 현재 여자노인 혼자 경영 하루매상 $300이나 전에는 주매상 $5,500넘던 가게였음. 작은돈을 투자하시고 살수 있으며, Rent에서 나오는 돈으로 Mortgage 지불하고 남음.
Asking : $13,500. Mortgage : 1st. 11⅛% $72,000
2nd Mortgage도 가능함.
연락처 : Mr. 박(오샤와) 1-623-7000

Variety Store 매매 (Hamilton)
년매상: $200,000 가격: $28,000 + 스탁
F. Gallo Realtor 전화: 1-383-9356

가게렌트

Gift Store for Rent
렌트 : $800/M. 넓이 : 800 s.f
663 Bloor St. W. 전화 : 531-1563(그베이스)

여권

여권번호 : 426871
분실장소 : Hamiton Downtown지역
연락처: 526-0014 (방 용학)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집렌트

2층 전체를 세놓고자 함(565 Pape Ave.)
2 Bed Rm. with 부엌 & 목욕탕.(노인부부환영)
월세: $350(M.) 전화 : 591-6863. 438-4519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O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홍기진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이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 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모날류)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